

종북 척결 - 정치 복원 꼭 이뤄야 한다

대선이 지나고 난 일 년 동안,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었거나 파업상태였다. 하루가 여삼주인 한국에서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완전히 신뢰를 상실할 것이고 사회는 방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댓글시비로 국정농락 더이상 없어야

대선과 관련하여 야당이 모든 것을 팽개치고 오로지 댓글 문제를 가지고 거리로 왔다갔다 하는 동안, 야당의원 한두 사람을 포함하여 여기저기서 대통령하야를 주장하고 나서는 사정에 이른 모습은 그냥 웃어넘길 일은 아니다. 댓글 때문에 대선을 부정선거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야당 내부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국정을 이렇게 농락해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지난 보선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미 선거민이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댓글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사초의 훼손이었다. 이에 대해 야당의 당사자들은 사과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그 의문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의 정치세력구조를 따져 보아야 답이 나올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의 정치세력구조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정부여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야당이며, 마지막 요소는 친북과 종북세력이다. 이 세 요소는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친종북세력이 제도권으로 자리 잡은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이를 애써 외면하려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은 그것을 단지 일탈집단으로만 보려고 했던 안이한 생각 때문이었다. 지금 공식적인 야당은 그 첫 번째 요소와 세 번째 요소의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 때문에 야당은 자동성 상실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하여 세 번째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북한이라는 전복세력이 이미 대한민국 정치판에 구조적으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치의 장에서는 이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등한시 하고 있다는 말이다. 북한의 장성택 숙청을 놓고 해외의 논평들에서는 북한의 불안 못지않게 남한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시사가 나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책임정치 무효화 시켜

민주주의가 모든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적용된다면 사회는 무정부상태에 빠지게 되고 정치는 독재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또한 만장일치제와 인민주권주의에 결부시키면,

2014 과제

특별기고



노재봉

·전 국무총리
·전 서울대교수·정치학박사

대한민국 정치판에
북한전복세력
이미 들어와 있어

대통령 비상대권
발동이라도 되면
대한민국 공화정치
나락에 빠진다

정치적 자유는 매장된다. 역으로 민주주의를 부정부적 자유로 이해한다면, 민주주의가 또한 매장된다. 민주주의와 자유는 서로 다른 가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유를 전제로 하여 정치영역에 한정되는 원리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른 바 국회선진화법은 정치의 물수를 가져 올 수밖에 없는 법이며, 만장일치제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여 경쟁적 선거와 책임정치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이런 양태가 빚어내는 것이 소위 포퓰리즘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거리에서 의사당으로 왔다갔다 하는 양상이 바로 그것이다. 포퓰리즘이란 언론에서 말하는 인기영합주의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것은 정치불신과 정치에 대한 괴리감이 심각할 때, 대중과 엘리트를 구분하여 엘리트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서 직접적 참여를 주장하는 것인데, 그 참여라는 것은 법적이거나 헌정적 제도와 절차를 무시하고 통치의 장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이해관계를 중재하며 타협하고 정치인이 선거구민을 먼저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따금 정부의 소임을 고려하지 않고 인기에만 매달려 급급하게 되면 정치인 자신은 존속할 수 있을지라도 나라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소수의 선동자들이 대중의 힘을 빌어 체제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포퓰리즘은 오늘 날 세계 도처에서 빈번히 움직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의 포퓰리즘은 한국이기 때문에 갖는 특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다른 이름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른 바 민주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의 표현이다.

북한찬양세력 폭발계기 기다리고 있어

한국의 포퓰리즘은 한국적 상황의 민족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것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대남선전 구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전구호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데에는 그 역사적 연유가 있는 것이다. 대한제국 말기부터 시작하여 독립운동에 걸쳐 지식인들의 머리를 지배했던 것은 사회진화론과 정치적 낭만주의였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개인의 존재가치에 앞서 집단의 가치가 우선되고, 투쟁에 필요한 기강 단결 충성 복종 폭력 등이 미덕으로 강조되며, '하나'의 민족집단을 이끌 영웅이 숭배되며 일체의 외세에 대한 배격감정이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또한 공산주의와도 쉽게 접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과 독립운동에 있어서 그러한 사상의 공헌을 저항민족주의 차원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단 독립이 된 이후에는 이는 역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이 처한 국제정치적 환경에 크게 좌우되어 그 사상의 흐름을 그대로 간직해 왔던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사회진화사상과 정치적 낭만주의를 합쳐 그것을 현실화 시킨다면 바로 북한이라는 체제가 산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사상적사고의 틀이 대한민국의 일각에 그대로 남아 있다는 현실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전복전략이 먹혀들어가는 이유인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라는 것이 이와 접합되면, 공공연하게 북한을 찬양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판국에 정치세계의 한해의 모습은 그런 신념을 가진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 것이다. 이것이 한국 포퓰리즘의 현주소이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세력은 지금 폭발의 계기를 찾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에 의한 천안함 폭파를 조작이라거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것 등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님을 인식해야한다.

2014년 정기총회 공고

대한언론인회 2014년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 시 : 2014년 1월 21일(화) 오후 2시 30분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안 건〉

1. 2013년 결산보고
2.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3. 임원개선
4. 기타

2014년 1월 1일

大韓言論人會 회장 洪元基

2면으로 이어집니다.

언론산업 활기 되찾는 한해 되기를

또 한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을 잊으시고 2014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언론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속도로 변화된 언론환경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흑자 경영으로 호황을 누리던 신문사들이 적자운영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는 만개한 반면 언론 산업은 오히려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문독자들이 줄어 들고 있고 덩달아 신문 지국장들이 “신문장사는 끝났다”며 지국 운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광복이후 가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사는 시장변화에 둔감했습니다. 대책을 찾기는커녕 여전히 과당경쟁에만 몰두했습니다.

우리나라 일간신문사는 2005년에 168개 사이던 것이 2012년 말 현재 324개

2014 신년사



홍원기

·본회 회장

사로 늘어났습니다. 신문협회 비회원사를 합칠 경우 그 숫자는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신문사는 근 4,000개사에 달합니다. 그래서 정통 언론사

謹賀新年

지난해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健勝하시고 가정에
항상 祝福과 榮光이 함께
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 합니다

2014년 원단

社團大韓言論人會

는 나날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반면 군소 신문사는 오히려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신문’ 만도 10여개사에 달합니다.

우선 ‘사이비 언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더 나아가 이제는 신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경쟁 못지않게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신문사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판매량을 늘려 판매(sales)-비용(expense)=이익(profit)이라는 기본 등식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 등식은 본사 뿐 아니라 우선 일선 지국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대한언론인회는 각 일간신문사와 방송 통신사 출신 원로 언론인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언론 상황을 방관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로 언론인들의 고견과 경험을 살려 적극적으로 언론산업 중흥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새해에는 언론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도록 우리 언론인회원들이 앞장서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 19대 회장 입후보자 공고

대한언론인회 제19대 회장 입후보자로 다음 2명이 등록하였으므로 이에 공고함. (2013년 12월 10일 등록마감)



김은구(金銀九)

생년월일 : 1938년 2월 20일(황해도에서 출생)
주 소 : 서울 송파구 오금로 35 길 17
현대아파트 37동 203호
대한언론인회 입회 : 1996년 10월 9일

〈경력사항〉

- | | |
|------------------------|----------------------------|
| 0-병력: 육군 병장 만기제대 | 0-부산방송본부장 |
| 0-동국대학교 법학과 중퇴 | 0-방송개혁발전위원회 위원장 |
| 0-조선일보 기자(교열부 체육부 사회부) | 0-인사관리실장 |
| 0-서울신문 사회부차장(대우) | 0-기획조정실장 |
| 0-경향신문 사회부장(대우) | 0-경영본부장 |
| 0-한국방송공사(KBS) 사회문화부장 | 0-KBS 아트비전 사장 |
| 0-편집취재본부장 | 0-KBS이사회 이사 |
| 0-사회교육방송국장 | 0-KBS사우회 회장 |
| 0-뉴스센터 주간(보도국장) | 0-공익광고협의회 위원장 |
| 0-보도본부 부분부장 | 0-대한언론인회 이사(4년), 동 상담역(4년) |
| 0-대전방송국장 | 〈훈 포장〉 |
| | 새마을 훈장 노력장, 체육포장 |



이병대(李炳大)

생년월일 : 1941년 11월 10일 생
주 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LG아파트 210-1201
대한언론인회 입회 : 1999년 7월 12일

〈경력사항〉

- | | |
|--------------------------|----------------------------|
| 0-서울대 문리대학 정치학과 졸업 | 0-스포츠국장 |
| 0-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언론과정 수료 | 0-사회교육국장 |
| 0-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위경영자과정 수료 | 0-해설위원 |
| 0-동아일보 입사(65) | 0-한양대 동문회관 웨딩프라자 회장 |
| 0-방송뉴스부 차장 | 0-한국방송기자클럽 감사 |
| 0-한국방송공사(KBS) 입사(80) | 0-대한언론인회 이사(02) |
| 0-보도본부24시 부장 | 0-동아일보 사우회(동우회) 이사, 동 부 회장 |
| 0-보도제작국장 | 0-대한언론인회 부회장 |
| 0-안동방송국장 | 0-한양대 경영대 AMP총동문회 회장 |
| 0-제주방송총국장 | |

1면에서 이어집니다.

남한은 식민지이고 북이야 말로 민족적인 체제라고 믿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깊이 뿌리박힌 이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는 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북한 인권에 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장성택이 처형당하든 대하여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것을 정당화하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처형 판결문에 노골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문구가 나오는데, 차마 중국제국주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조만간 남한에서 대신해서 그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관계가 있었다면 당연히 미제국주의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썼을 것이다.

무기력한 여당도 책임 면할 수 없어

이렇게 북한과 연계되는 한국적 포퓰리즘에 야당은 국정원의 무력화까지 주장하면서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있으며 정치는 현재 완전히 파업상태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방향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진 여당도 이 상태에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더더욱 회화적인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다. 대통령이라하여 국정을 혼자 움직여가는 것은 아닐진데, 정치실종이 포퓰리즘에 대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발동이라도 되는 날이면 대한민국의 공화정치는 나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정치인들은 물론 이거니와 국민들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제발 정치의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한영섭 회우

대한언론인회 홍원기 회장은 오는 1월 21일(화)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19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거관리위원장 한영섭(한국방송인동우회 회장·전 KBS보도실장)



한영섭 위원장.

후보자 추천 선거관리위원

김은구 후보측

송호빈(전 한국일보 논설위원·현 본회 감사)
김성배(전 KBS 보도제작국장·현 본회 부회장)
이종기(전 서울신문 부국장 겸 사진부장)

이병대 후보측

김호기(전 한국경제 사회부장·현 본회 감사)
안평선(전 KBS 춘천방송총국장·현 본회 이사)
박응칠(전 KBS 해설위원·전 동아일보 기자)

국회의원 자격심사제도 도입할때

2013년 연말 국회가 마치 ‘천상천하 유아독존’ 꼴이었다. 국회가 입법권과 예산심의 독점권을 손에 쥐고 파업하다시피 군림했지만 어느 누구도 말릴 재간이 없었다.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1인 헌법기관이라 자부하면서 민의는 못 들은 척하고 정쟁에만 몰두하니 우리네는 선거 때 뽑아놓고 후회하기를 거듭하는 처지다.

국회등원·법안상정마저 조건 흥정

전직 총리께서 정기국회 허송세월 모습이 안타까워 “왜 우리 헌법엔 국회해산권이 없느냐”고 물었다. 틀림없이 시중에 깔려있는 성난 민심을 듣고 대변하고 싶었을 것이다.

국회는 자기네 손으로 만든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도 무사태평이다. 국회는 총선이 끝나면 등원 조건부터 따지고 흥정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무법 치외법권 지대나 다름 없다. 등원 조건에는 국회직 감투 나눠 먹기가 먼저이고 각종 법안 상정에서부터 심의안 합의통과에도 조건이 따른다. 단 한 건의 안건도 그냥 맨입으로 법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없는 곳이 국회 아닐까. 정치안건은 ‘너 죽고 나만 살자’는 조건이고 민생법안은 재벌특혜, 부자감세가 흥정의 조건이다. 헌법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의 흥정에 따라 반자본 반시장 입법으로 시장기능을 힘으로 비틀어놓고 경제민주화라고 우기는 것이 국회다.

반면에 경제계는 2013년 내내 모처럼의 회복기미를 살릴 수 있게 투자와 일자리 관련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진정하다 해를 넘겼다. 예산안 심의는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박근혜 복지, 창조경제, 새마을 관련 예산은 안된다고 싸우다가 자기네들 지역구 예산 쪽지를 집어넣고서야 겨우 통과시켰다. 이를 보고 경제계 내부에서는 국회의 독선 독주만 막을 수 있다면 경제가 조기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고들 한탄한다.

국감·청문회서 호통치며 쾌감 느끼는듯

국회가 몸싸움으로 시작하여 전기톱, 최루탄, 공중부양까지 깡판으로 얼룩진 사실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 뒤 여야 합의로 제정한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 원칙을 원천봉쇄한 한국판 ‘기형 의회주의’ 모델로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야당이 대선불복 심리를 바탕으로 깔고 야외투쟁 나갔다가 국정원 개혁특위를 고리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친노와 비노 간 갈등 속에 문재인 의원의 ‘불복정치’가 국회정상화에 대한 불복으로도 비친다.

야당이 장외투쟁하다가도 눈을 반짝 켜고 달려드는 대목이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이다. 국감은 피감기관장들을 줄 세워놓고 호통치며 빠기는 최상의 무대다. 인사청문회는 공부 잘해 출세했다는 양반들이 공사구분도 못한 처신에 군색한 변명으로 전전긍긍하게 되어 국회의원들이 쾌감을 누릴 수 있다.

대정부 질문시간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라고 굽실거리니 헌법기관의 맛을 한껏 뽐낼 수가 있다. 이토록 국회의원들이 권위를 누리는 시각에 죄인처럼 증인석에 끌려가 하품만 하고 있는 경제계 인

2014
정치



배병휴

- 보훈 회우
- 전 매일경제 주필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민생뒷전 허송세월
해산론까지 나와도
막말·폭언 끊임없어

비례대표의원
당내기준만으로 선발
중복세력 진출
막을 수 없어

사들은 속으로 “이런 국회가 없으면 경제와 민생도 금방 따뜻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폭언·악담마저 면책특권 착각

국회의원들의 학력이 높고 훌륭한 경력을 쌓은 능력자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입과 행동에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막말, 폭언이 나오고 악담과 훗담까지 쏟아지니 이 또한 특권이나 면책의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례대표 조선의 여성의원인 지난 대선을 부정으로 단정하고 대통령의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다시 3선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게 “선친의 피살사건을 교훈 삼으라”는 악담으로 화답하여 정국을 꼬이게 만들었다.

이미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의 종북행태, 임수경 의원의 탈북자 배신론 등으로 국회의원 자질론이 도마 위에 올라있는 시점에 여기저기서 “여기 나도 있소”라고 서로 불길을 지피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더구나 국가안보 상황이 엄중할 때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정원 개혁특위가 대공수사권과 사이버 심리전을 무력화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하여 북의 3대세습 독재가 장성택을 ‘만고의 역적’으로 몰아 공개처형한 야만적인 공포정치를 보고도 국가안보를 흔들 수 있는 발상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측면에서 국회의원의 특수지위와 특권은 어디서 나왔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떠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부의 특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아무나 될 수는 없다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았지만 정부 고위직 인사청문회와 같은 공개적인 자격검증을 받은 적이 없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형식은 공천심사위의 기준에 의해 선발됐다고 하나 객관적인 투명, 공정한 잣대를 거친 적이 없다.

비례대표가 전문직의 의회진출을 위해 여성비례, 청년비례 등을 가미한 것은 제도발전이라 할 수 있지만 품위나 자질과 상관없이 당내 기준만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합당한가. 일부 당내 대리투표와 여론조사 조작사고도 드러난 바 있지만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반헌법, 이적 종북세력마저 아무런 제재 없이 원내로 진출시키는 현행제도를 그냥 두고 볼 것인가. 각 당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공심위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당내 지도부의 내부기준에 맞게 선출된 것이 사실 아닌가. 공천이 정당의 자율권에 속한다 해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합당한 자격기준만은 엄격히 적용돼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시각 현재도 NLL을 우리의 영토선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가 국정을 농락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제도를 심각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내부의 편의적 기준을 넘어 헌법과 국민의 시각에 의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반드시 적용돼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

6·25 참전 언론인들 ‘호국 영웅 훈장’ 받아

대한언론인회 6·25참전언론인들이 지난 12월 1일 정부로부터 호국영웅훈장(기장·사진)을 지역별로 전수 받았다.

호국영웅기장은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한차례 수여된 후 중단됐다가 63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정전 60주년을 맞아 6·25 전쟁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국민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기장이다. 호국영웅기장은 생존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1일 용산전쟁기념관에서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수여식을 시작, 각 지역별로 지방 자치단체 및 보훈처장, 군 관계자 주관으로 연말까지 전수식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 11월 2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금희 춘천보훈청장, 양종수 2군단장 공동으로 6·25 참전 유공자 96명을 춘천 라데나 리조트로 초청, 식전공

연 행사와 전수식, 오찬의 순으로 성대하게 치렀다. 영웅기장은 최지사가 직접 참전자 개인에게 전수했다. 이밖에 18개 시군은 시장 군수와 주둔지 사단



호국영웅훈장

장이 행사를 주관, 직접 전수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은 구청별로 2~3명씩 대표자를 불러 전수하고 경기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는 우편 또는 택배로 영웅기장이 송달되고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12월 27일 현재 파악된 영웅기장 전수 참전언론인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 공대식 김 집 김관태 김준하 김춘빈 김한길 문준철 박기병 송두빈 신현구 안광식 안현태 오관용 유승택 윤양중 이구열 이도형 이세환 이순기 이종기 이종식 임인흡 정연복 정용기 지용우 홍성혁 황대연 (미확인 김용수 지연홍 정원복 최서영 최창봉) [국회]

북한 내부 혼란 어디로 튈지 모른다

김정일의 사망과 동시에 김정은이 일사천리로, 일거에 정치·제도적 리더십은 승계하였지만 권력안정의 필수요소인 인격적 리더십은 인계받을 수도, 인계받지도 못하였다. 김정은이 2012년에 당 제 1비서,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 등의 정치·제도적 직위는 차지하는데 성공을 하였지만 충분한 리더십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김정은의 집권 2년 동안의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보면,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전시성’, ‘위락성’ 시설 건설, 김씨 우상화물 건설, 그리고 핵실험과 군사력 강화에 국가의 모든 부서가 총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정책비전의 제시도 없고, 좌충우돌식 시행착오와 지시의 반복 등으로 김정은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또한 총동적 인사와 현실과 능력을 무시한 정책의 과잉추진, 아마추어적 통치행태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이미지에 손상을 자초하였다.

2013년도 특기할 사변은 역시 북한에서의 권력구도가 극도로 불안해지고 정책들의 혼선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장성택, 김경희 등 친인척 후견인 세력과 최룡해 등 측근세력에 의거하여 북한을 통치해 오던 김정은은 지난 11월 하순부터 12월에 이르는 기간에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이며 정책적 조언자였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거하였다. 유일한 어른인 김경희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편인 장성택을 숙청하고 장성택의 기반이었던 행정부 1부부장과 부부장들을 공개처형하였다는 것은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심각한 균열이 일어났다는 반증이다. 장성택의 처형 이후 북한에서는 숙청의 파바람이 불고 있다

단기적으로 체제결속효과 있을지도

2014년 북한의 정세전망은 어떠할까? 북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역시 북한 권력 내부 동향이다. 장성택에 대한 잔인한 처형이 단기적으로는 전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체제결속과 김정은 1인 통치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김정은의 통치체제를 급속하게 약화시키고 권력 상층부가 분열하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2014년도에 장성택 일파의 숙청 작업을 매우 심도 있게, 폭이 넓게 진행할 것이며 동 과정에서 수많은 경험 있는 당 간부들이 숙청될 것이다. 장성택이 지도하였던 당 중앙, 도당, 시, 군당 위원회 행정부는 해체되고 동 기능은 당 조직지도부로 이관될 것이다. 김정은이 자신의 인척을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을 본 북한 당, 정, 군의 실세들은 장성택도 저렇게 죽이는데 자신들은 얼마나 쉽게 숙청을 당하고

2014
안보

특별기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장성택일당 숙청 여파 상층부 권력 투쟁 최룡해도 제거 가능성

새해초 도발 할수도 정권 붕괴등 급변사태도 대비해야

처형을 당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북한 간부들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어느 정도 믿었지만 장성택 처형을 본 후 김정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장성택과 측근들의 숙청은 장성택과 인생의 궤를 같이 해온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 부장들, 부부장들, 경제부문 고위 관리들과 외화벌이 일꾼들, 장성택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인민보안부와 사법, 검찰 간부들 속에서의 동요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북한권력 내부에 심각한 불안을 조성할 것이다.

누구를 믿어야할지 불안의식 확산

권력 상층부에서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불안의식이 증폭되고 주민 사회에서는 경제에 대한 절망, 체제에 대한 절망, 체제이완 의식이 확산될 것이다. 현재 최룡해가 체제의 2인자로 급속히 부상 중이나 최룡해가 장성택과 친밀한 관계를 수십 년 동안 이어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정은이 내년에 들어서 최룡해의 권력이 강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최룡해를 숙청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도에 최룡해 등 군부의 항배에 따라 북한에서는 권력 투쟁의 바람이 거세게 불 수 있고 군부의 동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장성택의 숙청으로 김정은은 가장 귀중하고 경험이 많았던 정책적 조언자, 가장 귀중한 동지를 잃어버렸다. 장성택이라는 정책적 조언자를 잃음으로 하여 김정은에게 정책적인 건의를 할 사람이 없어졌다. 김정은 주변에 야심분자, 과도한 충성분자들만 넘쳐날 것이며 이는 북한 정책결정에 심각한 오류를 조성할 것이다.

총괄적으로 2014년도에 북한에서는 불안정과 혼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건설, 경제 부문들에서는 장성택 일파를 청산하는 작업은 북한 경제, 대외무역, 북중 경협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김양건의 통전부와 225국, 무력부 경찰총국 등 대남 부서들은 살아 남기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숙청 사건에서 벗어나 김정은에게 충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내년 초에 대형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우리로서는 김정은의 리더십이 과도기에 있는 현 상황의 엄중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대북 역지력을 높이고 국론을 모으며 전략적인 대북접근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나가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불안정한 리더십으로 인한 ‘조기 축출 가능성’, ‘급변상황 발생’ 등 다양한 정권 붕괴 시나리오에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K]

건강상식

피부건조증과 안구건조증

본격적인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피부 건조증과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져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 곤란할때가 많다. 더구나 밤에 잠잘 때는 무의식중에 긁어 피부가 상하는 일도 일어난다. 또한 노안이 되면 안구 건조증으로 눈이 뻑뻑해지고 눈물이 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피부 건조증이란?

피부 건조증이란 피부 바깥쪽 각질 세포에 포함된 수분이 빠져나가 외부 자극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가려움을 유발하는 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 건조증 환자는 19만명을 넘어서었다. 이 중 절반이 겨울철에 피부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았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 한 것이 피부 건조증인데 증상으로는 피부의 윤기가 없

고 붉어지며 각질이 생기고 심각해지면 갈라지고 트기도 한다. 피부표면은 거칠고 따갑거나 가려울 수 있다.

잘은 목욕·사우나 피해야

겨울철 피부 건조증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사무실이나 집안에서 오랜 시간 온풍기나 난방을 이용할 경우 습도가 낮아져 피부 건조증 유발률을 높인다. 또 겨울철 잦은 목욕도 피부 수분을 줄여 피부를 상하게 한다.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오랜 시간 사우나나 잦은 목욕을 피하고, 목욕 후에는 피부의 습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실내온

도는 너무 덥지 않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옷은 되도록이면 가볍게 착용해서 늘하게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몸을 녹이기 위해 온풍기 바람을 직접 맞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가려움증을 느낄 때는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윤수 피부비뇨기과 전문의(박사)는 “가려운 부위를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움증이 더욱 심해지고 습관성으로 진행될 수 있다” 며 “긁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가려운 부위에 집중적으로 보습제를 발라 다른 곳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해야한다” 고 말했다.

피부건조증의 관리방법

첫번 째, 세안이다. 계면활성제가 적

은 제품을 사용해 피부의 자극이 적도록 부드럽게 세안하고 피부의 보습인자 손실을 막아야 한다. 두 번 째, 각질층에 수분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스트제품은 수분 공급에는 도움이 되나 금방 증발되어 천연보습인자를 제거 해 일시적으로 촉촉 하긴 하나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더 건조해 진다. 그래서 피부 건조증을 막으려면 수분공급을 한 후에 수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제품을 덧발라 보습력이 오래 가도록 해줘야한다.

그러나 피부 내부적으로 건조함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고치고 약한 피부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수분이 많은 채소나 과일 등을 먹는 것도 피부 건조증에 좋다.

안구 건조증이란 ?

안구 건조증이란 눈물이 부족하거나

5면으로 이어집니다.

대선 불복 억지 더이상 부리지 말라

정쟁으로 1년 허송한 대한민국 국회

2013 대선을 치른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정치는 아직도 대선전이 계속 중이다. 그 결과 지난 1년의 한국은 국민소외, 정치파행, 기강부재의 부끄러운 나라였다. 의회는 정기국회 100일 중 99일 동안 법률하나 다루지 못하고 있다가, 국민비판에 부딪히자 마지막 날에서야 하루 34개 법안을 서둘러 처리했다.

정치허송의 원인은 많다. 원인분석은 주관적인 인식문제가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러나 요약하면 야권의 ‘대선불복’과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불통비판’이다.

문재인과 민주당, 대선 승복인가 불복인가

대선불복은 선거에서 패배한 문재인후보와 그의 민주당에서 나왔다. 불복의 계기가 된 것은 국가기관 댓글의 선거개입이다.

박근혜후보는 선관위에 의해 대통령당선자로 공식 공표되고, 문재인후보는 선뜻 패배를 선언하고 대선에 승복한다고 선포했다. ‘패전한 장수는 변명하지 않는다’는 패장불어(敗將不語)의 경쟁윤리를 지킨 깨끗한 자세였다. 누구도 박근혜의 불법당선을 주장하거나 반대소송 없이, 시효기간 6개월이 지났다. 따라서 박근혜는 합법적으로 당선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국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댓글사태가 계속되면서, 문재인의 말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대선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국정원 댓글에 덕을 본 것은 박근혜’라고 주장하며 반론을 폈다. 이런 댓글 때문에 자기가 낙선하고 여성후보 박근혜가 당선됐다는 ‘패장의 변명’이자, 남자의 ‘일구이언’(一口二言)이 아닌가. 그러나 유권자의 입장에서 필자가 본 문재인의 패인은 댓글이 아니라 비례(非禮)다.

이승만 박정희 묘소 외면이 주요 패인

추석을 며칠 앞두고 문재인은 국립묘지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안치돼 있는 건국대통령 이승만(李承晩)과 근대화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묘소를 외면하고, 자기당 소속이었던 김대중(金大中) 묘소만 참배했다. 이것은 ‘예의지국’(禮儀之國)의 예절바른 태도는 아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때 그의 마음과 생각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조상숭배의 날인 추석에 모여 앉은 국민들은 그들이 훌륭한 국가지도자로 공인하여 존경하고 있는 두 선대 대통령을 무시한 후보 문재인의 비례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박근혜가 봉하마을로 가서 수사도중 자결한 노무현(盧武鉉)의 묘소를 참배하고, 사망한 반대당 두 대통령의 미망인들을 방문하여 예를 표했던 것과 문재인을 비교했을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문재인은 전혀 몰랐을까. 그러나 그때 필자는 단정했다.

‘아, 문재인 쟤다. 박근혜 당선이다.’

문재인은 낙선을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안철수의 사퇴 덕분에 그 정도라도 득표할 수 있었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의 무절제한 동조

민주당도 말로는 대선불복이 아니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들이 벌이는 실제 행위는 분명히 대선불복이다. 게다가 소속 의원들은 대선불복이라고 밝히면서, 박근혜는 사퇴하라,



구종서

- 본회 논설위원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정치학박사/소설가

말로는 아니라면서

철도 파업등 동조

속마음 드러내

반국가 - 종북 벗어나

헌법질서 지키는게

다음선거 이기는 길

박정희처럼 암살될 수도 있다는 투의 말을 공개적으로 토했다. 여기에도 성인들의 가르침을 설파하며 사목행위에 전념해야 할 정치성 종교인들까지 합세했다.

대선불복이라는 정치혼란은 솔직하지 못한 야권의 행위가 불러온 사태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말이 대선의 승복인지 불복인지 불명하여 걸말과 속마음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는 모순에 기인한다.

더구나 국민에게 큰 불편을 가져온 철도노조의 파업주도자에 대한 경찰의 영장집행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철도파업에 동조하고 나섰다. 전통 있는 제1야당의 떳떳한 자세는 아니다.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도 안철수 1인체제에도 미달하는 여론도 숙고해야 한다.

잇단 선거에 패배한 민주당이 다음 선거들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 하지만, 오히려 패인이 되지 않을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의 우리 국민은 여향속의 봉어 보듯 정치인들의 의도와 행위를 정확히 읽고 판단하여 기표한다.

대통령은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소통부재(疏通不在)라고 비난 받는 ‘불통’은 박근혜 리더십의 특수한 지도방식 같다. 불통이란 무엇인가. 결국은 자기와 만나서 자기얘기를 듣고 자기 요구를 들어 달라는 말이 아닌가. 그러나 취임초의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는 아니다. 대통령은 이미 선거 때, 많은 국민과 사회지도자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들어 잘 알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대표는 국회업무를 피하고 시민광장에 나가 야숙하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마침 그때 대통령은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었다. 더구나 주요국가 원수들을 만나 양자회담까지 열기로 돼있었다. 그가 준비해 가야할 숙제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런 박근혜에게 노숙 중이던 김한길이 영수회담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했는가. 결국 회담은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야 이뤄졌다.

대통령의 불통을 비판하고 있는 국회에서도 불통은 마찬가지다. 아니 더했다. 여야 정당간의 의견불일치, 그로인해 누적된 수많은 법률안, 더구나 선거공약 실행에 필요한 법률들의 제정, 헌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 등은 바로 국회불통 정치파행의 결과다.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투철한 국가관’

필자가 국가지도자 특히 정치인들의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은 국가관(國家觀)이다. 국가관이란 자기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동체인 ‘국가’와 그 구성원인 ‘전체 국민’의 이해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대아우선주의(大我優先主義)다.

국가의 기본체제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을 존중하고 그 질서를 지키면, 애국적인 국민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회의원 대통령도 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반국가(反國家)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고 북한의 주장을 펴면서 북한의 이익을 지킨다면, 그것은 종북(從北)이다. 우리가 세워져 지키고 발전시킨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합법체제를 거부하는 반국가 종북 세력과는 공존할 수 없다. 정치인들이 반국가 종북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과 정당의 입장을 초월하여 헌법이 설정한 국가공동체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다음 선거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유효전략이다. [㉠](#)

4면에서 이어집니다.

눈물이 지나치게 증발하거나 눈물 구성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고 눈이 시리고 자극감, 이물감, 건조감 같은 자극증상을 느끼게 되는 눈의 질환을 말한다. 건성안이 아주 심할 경우 각막이 말라 시력이 심하게 저하되기도 한다.

원인은 눈물 분비 저하나 눈물의 지나친 증발, 눈물 생성기관의 염증 등으

로 알려지고 있다. 또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눈물샘의 침샘 등 분비샘에 염증세포가 침윤되어 분비샘의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 피부 및 점액 막에 염증이 생기는 화귀병, ‘스티븐존슨 증후군’(약제나 병원 미생물 감염 등으로 일어나는 피부알레르기)도 안구건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명동성모안과의원 김동해 원장은 “건조한 실내 공기와 컴퓨터·스마트폰 등을 근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면

‘안구건조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공눈물 넣고 휴식취해야

안구건조증의 가장 간단한 치료법은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 것이다. 또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실내습도를 60% 정도로 유지하고 하루 3회 이상 환기시키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 안구건조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약물로 증상을

경감시키고 장기간의 컴퓨터 작업이나 게임, 독서 등을 피하고 중간 중간 적절한 휴식을 취해줘야 한다.

그리고 외부자극을 줄이기 위해 안경을 쓴다.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틀어놓는 등 환경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

(도움말) : 이윤수 피부비뇨기과 원장, 김동해 명동성모안과 원장

경제 민주화 - 활성화 병행 추진하라

2014년은 갑오년, 말띠 해. 말띠 팔자가 사납다는 속설과 미신처럼 새해 경제가 드세고 어렵게 전개될지, 아니면 역주하는 말과 같이 역동과 도약의 한 해를 이룰지, 그 전망을 속단하기 어렵다. 여러 관계기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표적 경제지표인 성장률을 볼 때 전년보다는 나아지고 회복국면을 보일 것이란 경제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내외의 난제들로 인해 우려되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들이 많고 보면 명암이 엇갈린다고 할 수 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았지만 경제는 그 전망을 불투명하다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다.

한국 성장률 평균 3.5% 전후 전망

주요기관별 2014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보면 ▲ING 그룹 2.6% ▲UBS 3.0%, ▲삼성경제연구소3.1%, ▲보험연구원 3.2%, ▲한국경제연구원3.4%, ▲국회예산정책처와아시아개발은행(ADB)모건스탠리 3.5%, ▲LG경제연구원3.6%,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 골드만삭스3.7%, ▲한국은행,현대경제연구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스탠다드차타드 3.8%, ▲기획재정부, 도이체방크 3.9%. 그런가 하면 ▲금융연구원과 노무라증권, BoA, 메릴린치는 4.0%로 예상해 국내외 주요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전망치를 나타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3.9%보다도 0.1%p 높은 수치다. ING그룹의 전망치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새해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0.2~1.2%포인트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GDP 성장률 2.8%를 전망한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3%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면서 새해에도 경기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새해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소비 및 투자증대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물가불안 없이 한 나라가 모든 생산 자원을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작년 11월 19일 2014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한 OECD는 다른 신흥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자본이 유입되고 있고 주가상승 등으로 기업·가계심리가 향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가 추경편성 등 재정지출 증대와 저금리 기조로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한편, 국민행복기금 조성 등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해 실업률은 3.1%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35만명 수준보다 확대된 40만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높게 전망하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세계경제가 지난 3년간의 성장을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인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반등 성장하면서 수출이 전년보다 확대돼 우리 경제성장률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IMF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의 2.9%에서 3.6%로 반등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문제와 양적완화 축소 실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둔화와 같은 위험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어 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긴 힘들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완전한 회복세와 신흥국의 주춤세가 이어지면서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다.

美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리스크 우려

새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가늠할 최대복병으로 작용할 요인은 외생변수로서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과 중국, 유럽 등 주력 수출시장의 여건, 예측불허의 북한 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그리고 가계를 망라한 경제 주체별 누적부채 문제와 함께,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내수부진 타개, 청년실업 완화등 내재적 난제들도 극복해야 할 과제지만 대외여건에 취약한 체질이고 보면 외생변수가 주요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재정여건이 취약한 유로존 국가와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지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약화될 수 있다. 유럽은 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수년간 지속된 긴축재정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재정위기가 심각한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침체와 금융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세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세종대 석좌교수

성장률 회복세 전망

내외 난제들로

명암엇갈려

정치권-일부계층

반민주 작태가

걸림돌 될 우려

계교역 증가가 더디게 이뤄지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의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년에도 지속돼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해 경제성장률(3.4%)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한 한국경제연구원은 미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 지속, 가계부채 감축 진행, 경제민주화 입법 강화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이 경제회복을 제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미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 한다면 신흥국 리스크로 연결돼 우리나라의 경제 불안정성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대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비중을 견주더라도 한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 여건과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높은 가계부채와 부진한 부동산시장이 민간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IMF는 새해 한국경제가 회복세를 가속화할 전망이라면서도 하방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 낮은 성장률이 나오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낮은 가계소득 증가율, 누적부채, 보수적 재정운용계획 등으로 인해 수요가 수출실적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는 한편 빠른 인구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 선순환, 체질개선이 관건

작년 4월 한국 경제를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비유한데 이어 작년11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위기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거듭 주장한 리처드 뚝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소장의 2차에 걸친 경고를 한번쯤 음미해볼 만하다. 그는 4월의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에서 "중산층의 가계부채 부담, 고용없는 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을 한국경제의 위험 요소로 지목하며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는 추락하고 말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당파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질 좋은 성장과 경제민주화가 선순환하는 경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선 후유증에 갇혀 1년 가까이 허송세월을 하고 말았다.

글로벌 경영컨설팅회사인 맥킨지의 뚝스 소장은 "한국이 아직도 심각한 착각에 빠져 있다"고 경고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경제와 기업은 별개가 되고 있어 한국 기업이 잘 나가는데 한국에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란 것이다. 엔저 파도가 새해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하고 아베노믹스가 지속되는 한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텐데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구리가 냄비를 뛰쳐나갈 기회는 남아 있어 수출 제조업 외에 성장을 이끌 축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는 "결국 문제는 실천"이라며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 금융당국이 당파를 초월한 위원회를 만들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구체적 방안을 논의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선후의 별개 정책과제로 간주하지 말고 병행 추진하되 경제민주화는 중장기과제로, 그리고 경제활성화는 단기과제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촉발되기 시작한 이후 저간에 우리 경제사회의 실태를 지켜보니 경제민주화를 경제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더 이상 미룰 일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사실이 재삼 입증됐다고 보기 때문이란 것이다.

수서발 KTX범인설립에서 불거진 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보듯 공기업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입으로는 민생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를 외치면서 정쟁에만 매달리고 본분을 일탈해 거짓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정치권과 일부 계층의 모순된 반민주적 작태를 척결하거나 불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정치민주화는 물론 경제민주화나 경제활성화 나아가 선진화도 어렵다. [4]

한미동맹 지키며 ‘敵’은 만들지 말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말아야.

2013년 하반기에 들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역내(域內) 패권적 위상을 다투는 듯 한 두 가지 군사·안보적 이슈가 표출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collective self-defense) 행사 검토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선포다. 2014년 한반도와 주변안보정세는 북핵문제 이외에도 이들 두 이슈와 관련된 역 내외 세력 간의 힘의 대결 양상에 따라 그 향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이슈는 각국의 역내 위상 확보를 위한 전략적 포석의 일환이다. 또한 역외 세력인 미국의 직접·간접적 개입도 불가피하고,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들이다. 또 각 국의 관할 해역·공역·영토 등 주권 차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어 어느 쪽도 결코 물러 설 수 없는 일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여전히 미군인 상태인 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가 불거지고, 여기에 중국의 느닷없는 방공식별구역선포까지 겹치게 되어 동북아를 둘러싼 주변정세는 이제 세 개의 ‘뜨거운 감자’를 손에 들고 저글링(juggling)해야 하는 형국이 됐다. 한국이 ‘고래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으려면 현재의 한·미 동맹관계를 확고히 견지하면서도 어느 누구와도 적대적 관계에 서지 말아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고도의 지혜와 전략을 요구한다.

일본 집단자위권 놀랄 일 아니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하여 최소한 2016년까지는 안정적으로 ‘보통국가’(normal nation)로서의 집단적 자위권을 본격적으로 추구 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재균형’(rebalancing) 개념의 아시아·태평양 전략과 보통국가를 지향하는 일본의 국가전략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놀랄 일도 아니다. 1990년대 초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 일본의 앞날에 대한 비관적 전망 속에서 민족주의 사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중의 하나가 보통국가의 지향이며 집단자위권의 추구다.

우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우려하기 전에 우리의 자주 국방능력부터 강화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급선무다.

한·중·일 군사대화의 계기로

중국 국방부는 작년 11월 23일 동중국해 상공을 관련국들과 사전협의 없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의 영공(領空) 방위를 위해 일정범위의 영공 밖 공해(公海)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구역이다.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영공이 아니므로, 외국 항공기의 자유비행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퇴각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는 군사적 조치다.

한국의 이어도와 일본의 센카쿠(다오위다오)가 이번에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고, 미국 군용기도 비행훈련을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예민한 반응은 당연하다. 한·미·일 3국은 중국의 일방적 조

2014
외교

특별기고



박용욱

·신 아시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국방부차관

일본 집단 자위권

중국 방공식별구역

협력증진 기회될수도

대북억제력 독자구축

軍 전력 증강등

국방투자 늘려야

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사흘 후인 11월 26일(한국시간) B-52 전략폭격기 두 대를 중국에 사전통보 없이 문제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게 했고, 28일에는 일본의 항공기도 사전통보 않고 비행을 감행했다. 우리 군용기도 이어도 상공을 중국에 사전통보 않고 비행했다. 한국, 미국 및 일본의 이런 군사조치에 대해 중국은 아직 군사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필요시에는 ‘방어조치’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우리 정부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 마라도, 홍도 등이 포함되도록 확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관련국들에 설명한 후, 12월 8일 공식 선포했다. 이 선포는 15일자로 발효됐다. 우리 정부는 우선 중국의 일방적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미국 및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했다. 그리고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과 일치시키도록 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분쟁 소지를 최소화 하는 노력을 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한국의 조치를 묵인하는 입장을 취하는 듯 하다.

문제는 앞으로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우발사태를 방지하는 일이다. 관련국들은 우선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우발사태 방지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한국의 방공구역 확대 선포를 계기로 한·미·일 및 한·중·일 협력관계가 병행 발전되는 계기가 된다면, 이번 중국의 일방적 조치는 오히려 한·중·일 3국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사태 능동적대응 긴요

우리 주변군사상황은 무섭게 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 등 영토·영해주권 확보를 위해 전력증강을 급속히 서두르고 있다. 중국은 작년 첫 번째 항모인 라오닝호를 서둘러 실전 배치했고 앞으로 2020년까지 3개의 항모전단 구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집단자위권 기치 하에 2015년까지 3,000명 규모의 해병대를 창설하고, 미국으로부터 40기의 F-35스텔스기를 구매하는 등의 자위대 전력강화와 센카쿠 등 일본 영공·영해에 진입하는 중국 항공기의 격추를 허용하는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군사적 행태는 앞으로 우리의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무력시위로 확대 될 개연성을 안고 있다. 중국은 이어도를 이미 무인정찰기 감시대상으로 설정했고, 일본의 순시선과 군함은 독도 근해를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군도 작년 12월 13합 합동참모회의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이지스구축함 3척을 추가 건조하기로 결정했고, 공군은 차기전투기 사업을 F-35 스텔스 기종으로 결정, 추진하고 있다. 상황의 급박성에 비추어 볼 때, 전력증강 사업이 지지부진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주변국들의 군사력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만 높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우리 입지만 초라해 질뿐이다.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대북억제력 및 군사작전역량을 서둘러 강화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우리 안보에 불리하게 작용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국방투자 규모와 외교 역량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체제를 한층 강화하여 앞으로의 위기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무부]

본회 이사회 2014 사업계획등 논의

제139차 이사회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1시 본회 회의실에서 홍원기 회장을 비롯한 임원(김경태 김해도 윤기로 이사 위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13년도 사업추진 실적보고와 2014년 사업계획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열

린 이날 이사회에서 홍원기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대한언론인회가 여러모로 활기있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임원진들의 노고와 회원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말하고 2014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몇 몇 회우의 의료비 지원과 송년회 및 합동 고회연개최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고 2014년도 정기총회 준비, 특히 제19대 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는데 합의했다.

홍원기 회장은 우선 양 후보의 동의 를 얻어 한영섭 원로회우(전 KBS 보도실장)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했

다.(별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기사 참조)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2013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되 수입 감소요인 등을 감안해 건축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기타 신규사업은 차기 회장 취임후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집중 논의, 실행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국무부]

“북한 공포정치 - 체제불안 전망” 일색

대선불복과 중북논쟁으로 얼룩진 2013년 연말, 오랫동안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북한 국방위부위원장의 잔혹한 처형으로 김씨 왕조 65년의 ‘백두혈통’을 지키려는 북한 폭압정치의 실상이 폭로돼 세계가 경악했다. 신문들의 논지는 고모부인 장성택 처형이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중요지들은 취약한 김정은이 통치수단인 공포정치로 체제불안을 증폭, 가속화할 것이라며 내부단속을 위해 어떤 도발을 저지르지 모르므로 미·중 등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장성택 처형 9일전 그의 실각설을 국회에 제기한 국정원의 태도가 현안 물타기라고 비판하는 우를 범했다.

동아일보는 12월14일 사설 ‘장성택 체포 나흘만의 처형, 잔혹한 야만에 경악한다’에서 “군사재판 판결문은 북한 체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준다. 판결문에는 장성택이 현재 나라의 경제 실태와 인민 생활이 파국적으로 번지는 데도 현 정권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다는 불만을 (북한 주민들에게) 품게 하려고 했다”고 나와 있다.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또 장성택은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 일정하게 생활 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씨 왕조 폭압 통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세력과 자생적 혁명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놀랍다.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주민의 민심 이반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사설 ‘김정은 체제 취약성 드러낸 장성택 처형’에서 “‘백두 혈통’에 대한 도전은 추호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김정은 유일 영도체제가 아직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당과 군, 내각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체제 공고화를 위한 김정은의 선택이 체제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김정은이 제 발등을 찌는 위험한 도박을 했다고 보는 이유다. 피바람이 촉발할지 모르는 급변사태부

터 관심의 외부 전 환과 대내 결속을 노린 대남·대외 도발까지 정부는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선은 11일 사설에서 “‘장성택 일당’으로 숙청되는 사람이 수만 명에 달하리라고 한다. 북한 체제 내에 폭발의 압력이 더욱 쌓여간다는 말이다”라고 쓴 데이어 14일 ‘기관총으로 사살됐다’는 장성택, 저 북을 어찌해야 하나’에서는 “광기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살인극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북한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대숙청과 공개

신문시평



김영환

·본보 편집위원
·전 한국일보 파리특파원

한겨레는 달리 봤다. 4일 사설에선 “다수 전문가들은 김정은 권력이 공고해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장성택이라는 후견인이 없어져도 될 만큼 체제가 안정기에 들어갔으며, 김정은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세대가 권력의 중심을 차지하는 구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장성택 실각설 공개와 관련된 국정원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장성택 측근 2명 공개 처형’ 역시 최종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이 사실이 장성택 실각과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가 실각해 북한 내부에 상당한

좌파들은 북한인권 참상에 눈감고 지옥을 벗어난 탈북자를 ‘변절자 새끼’라고까지 욕했다. 그런 게 북한의 변화를 막는다. 올해도 유엔은 18일 북한 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법치주의의 부재로 공개처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성택 숙청은 권력 강화 아니다”

한국일보는 14일 사설에서 “장성택 숙청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2인자를 내칠 정도로 김정은 정권이 확립돼 있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즉각 처형, 즉각 공개라는 전례 없는 폭압정치는 역으로 반대세력이 상당히 퍼져 있다는 불안정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토마스 셰퍼 북한 주재 독일 대사가 “‘장성택의 실각을 김정은 권력의 강화로 보는 것은 오판’이라며 ‘권력 입지가 매우 좁은 김정은이 군부로부터 장성택 축출을 강요당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고 지적한 것은 돋보였다. 일본 닛케이는 10일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미·중·한 등과 연대하여 새로운 도발과 북측의 사태에 대비하자”, 요미우리는 “지도층에 부패가 침투하고 있는데 대한 위기감의 반영이 아닌가”라고 썼다.

2013년은 대선불복 프레임에 갇힌 야권 탓에 조용할 날이 없었다. 국정원 댓글과 트윗은 인터넷 미디어로서 중북의 창궐에 대비하는 대북 심리전이기도 하다. 미디어 발신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먼저 부정선거로 모는 것은 정치공세다.

한국은 9일 ‘대선 불복 민주당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사설에서 12·19 민의의 선택을 ‘사이버 쿠데타’라고 매도한 장하나 비례 의원 발언의 취약성과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그의 돌출행동은 부정 선거와 대선 불복 사이에서 애매한 자세를 보여 온 당 지도부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문재인 의원도 최근 저서에서 ‘공정하지 못한 선거였다’고 주장해 대선 불복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민주당은 차체에 대선 불복 문제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마땅하다”는 정론을 썼다. 새해에는 정치권, 특히 국회가 국가발전을 위해 집단 지성을 되찾도록 신문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K]

주요紙 사설 급변사태대비등 촉구 ‘김정은 체제 공고화’분석 엇박자도

처형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 군부는 장성택과 수십 년 간 인연을 맺어온 인물들이 곳곳에 박혀 있어 숙청과 처형 강도가 더 심할 게 뻔하다. 정부는 13일 ‘예의주시하겠다’는 말밖엔 달리 취할 조치가 없었다. 저 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큰 숙제다”라고 말했다.

북에 변화 희구세력 광범히 존재

문화일보도 13일 ‘北 장성택 전격 처형, 김정은 체제의 허약성 보여준다’ 사설에서 “이는 변화를 원하는 세력이 노동당과 군, 내각 등 모든 권력 조직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대적 색출·숙청 작업이 불가피하고, 이는 다시 체제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요한 것은 ‘권력의 2인자’ 조차도 북한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급변 가능성, 대남·대외 도발 가능성 모두에 더 치밀하게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썼다.

변화가 생기더라도 우리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충분히 대처할 역량이 있다”고 근거없는 낙관론을 펼쳤다. 한겨레는 14일 사설 ‘시대착오적 공포정치 즉각 중단해야’에서 “장성택의 전격적인 사형 집행은 북한 정권의 후진성과 잔인함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지만 “북한 체제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이중적 견해를 취했다.

한겨레는 또 “지난 몇 해 동안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기조를 장성택의 국가전복음모와 연결한 것은 군부 등 강경파의 발언권이 커졌음을 뒷받침한다. 남북관계가 좋았다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 모른다”라고 외부요인을 끌어냈다. 하지만 세습 독재와 공포정치, 주민 기아를 달래려고 손 벌리는 고난은 자유와 창의를 짓밟는 폐쇄된 지도자의 책임이다. 근 100억 달러의 유화적인 대북 포용과 십수 년 간의 6자회담은 북핵 개발의 자금과 시간만 대줬다. 반면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들먹이는 중북

언론가 소식

프레스클럽 2013 송년음악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 30분 프세

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송년음악회를 열고 한해를 마무리 했다. 만찬을 곁들인 이날 송년음악회는 180여명의 회우가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신나는 노래 한마당’에 심취했다. 흥원기 대한 언론인회 회장을 비롯한 간부진 다수도 초청된 이날 송년음악회는 가야금 앙상블 ‘가야린’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과 매직쇼, 린의 신나는 퍼포먼스, 마술공연 등 국악과 현대무용의 어울림으로 시간가는줄 몰랐다.

한국언론 진흥재단 김병호이사장 취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김병호 전 국회의원(사진)이 취임했다. 12월 26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병호 이사장은 1943년 경남 부산 출생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국제신문, 부산일보 기자를 거쳐 KBS보도본부장을 역임했

다. 이후 동아방송대학장을 거쳐 16,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박근혜 대통령후보 공보단장을 지냈으며 지난 6월엔 KT 비상임 고문으로 영입되기도 했다.

관훈클럽총무 이용식씨

이용식(52) 문화일보 논설실장이 관훈클럽 제61대 총무로 선출됐다. 임기는 1년. 신임 감사에는 방문신 SBS 부국장,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선임됐다.

경찰 민노총 진입 종편 생중계 압권

새 정부 출범 후 1년 내내 계속된 정쟁(政爭)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뉴스의 홍수에도 모자라 철도 파업이 국민생활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일 사상 최장 파업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철도파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사측인 코레일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를 고발함에 따라 경찰은 파업 주도자인 노조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했다. 4천여 명의 경찰이 하루 종일 작전 끝에 경향신문 사옥 13층에 세든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엔 성공했어도 파업 주도자인 철도노조 간부의 체포엔 실패했다.

설립 후 18년 동안 성역으로 간주해 온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강제진입하자 민주노총은 공공연히 정부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권퇴진 투쟁을 선언했고 민주당 등 야권은 이를 불붙이려고 연대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판에서 자양분을 빨아 커가고 있는 이른바 시민단체도 질세라 가세했고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먼저 들고 끼어드는 것으로 민주당 뒷받침 호남에서 민주당을 멀찌감치 쫓기고 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을 바짝 쫓고 있는 안철수 의원 측도 재빨리 정부가 노동자와 대화할 것을 압박했다.

원칙과 정상적 법집행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코레일은 파업에 따른 인력부족을 공개채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뉴스를 통해 중계방송을 보듯 국민들은 소상히 들여다보았다.

방송뉴스 역할 일깨워줘

실제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파업 주도자인 철도노조 간부들이 숨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하루 종일 편 경찰의 진입작전을 시청자들은 방송을 통해 소상하게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을 시도했던 날 채널A, 조선TV, YTN, MBN 등 종편은 평소보다 뉴스시간을 훨씬 더 많이 편성해 현장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덕분에 다른 어떤 공권력 집행 현장보다 생생하게 생중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청자들은 우리나라 공권력의 현주소를 인식하게 됐을 것이다.

방송 뉴스의 역할을 평가할 수 있게 한 일이라고 생각 한다. 경찰력에 당당히(?) 맞서 완강하게 투쟁하는 노조의 기득권 수호 투쟁 모습도 확인했고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는 경찰관 속에 버티고 서서 공공연하게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심정을 뒤집어 놓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참모습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뒤늦게 국회의원의 특권을 보여주려는 듯 보무도 당당히(?) 행진하듯 진압 경찰관 사이를 뚫고 현장에 들어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동영 고문 등의 모습에서 과연 그들이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든다.

지상파와 종편 모두 국민에게 철도 파업의 진실과 각 뉴스 주제 간 의견 차이와 입장, 나아가 속셈을 이날 현장 중계와 해설로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었다고 본다. 방송의 역할을 다 한 하루였다고 평가해 주고 싶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 방송이었다고 점수를 매길 수 있지만 속을 들

여다보면 몇 가지 눈에 거슬리는 점이 보인다. 우선 아무리 장시간 계속된 방송이고 생중계에 가까운 방송이라 하더라도 진행이 이따금 끊기는 등 매끄럽

방 송 시 평



오건환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총국장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보장돼야 하고 취재원은 가능한대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다. 이날 방송 화면을 보면 화면 속에 웹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가 의아할 정도로 많이 보였다. 과장하자면 진압경찰관 수만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많았다.

방송 중계용 카메라는 비교적 안전한 먼 곳에 장착돼 있음은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입증이 됐고 몇몇 방

송사 로고가 있는 카메라가 화면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근접촬영과 다양한 화면을 위해 진압현장 가운데 투입한 것으로 보였다.

시청자들에 공권력의 현주소 보여줘 자막-화면 불일치등은 눈에 거슬려

지 못한 점이 눈에 띄었고 내용과 자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야당등 입장표출 너무 잦아

예를 들면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자막에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얘기를 계속 보여주었고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안철수 의원의 말이 장시간 자막으로 노출 되는 일 등이 비일비재했다. 더구나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민주노총 관계자의 말이나 야당, 안철수 의원 등의 입장 표출 빈도가 의아하게 생각될 정도로 많이 방송됐고 이런 자막은 한 두 줄밖에 안 되는데도 1분 이상씩 노출되는 일이 반복됐다.

옆에서 함께 시청하던 다른 시청자들은 뉴스를 진행하는 스태프들이 젊고 편향적인 사람들이어서 의도적으로 진입 반대자들의 의견 노출 빈도를 높이고 장시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또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은 물론 진행자와 해설자까지도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여 흥분한 상태를 보여준 것도 한 가지 흠이라고 하겠다.

현장접근 기자정신 돋보여

또 하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의 취재 편의 제공과 보장 문제이다. 기자 특히 현장 취재 기자는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더 현장 가까이 접근해 확인하고 싶고 상황이 발생하고 계속되는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취재를 하면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취재를 할 수 있을 것이어서 현장 접근을 노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장 접근은 취재의 자유란 측면에서 충분히

다음으로 눈에 띄는 카메라는 긴 지시대 위에 매달린 캠코더들이다. 이 카메라는 분명 경찰이 현장 채증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짐작돼 불가피하게 현장 가운데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밖에 진압경찰관 숫자에 버금갈 만큼의 많은 카메라, 거의가 아무런 로고도 없는 소형 캠코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엄청난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지상파, 종편, 케이블 방송사 현장 취재기자들의 카메라로 짐작됐다. 앞서 말한 대로 상황 발생 동 시간에 현장에 접근해 좀더 생생한 현장 화면을 보여주겠다는 취재 기자의 열의와 사명감은 높이 사줘야 하고 가능한대로 이를 보장해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현장 화면을 보면 이들 취재기자들이 진압 현장 속에 영커 있어 경찰의 진압작전 자체가 어려웠음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폴리스 라인 지켜 취재했으면

경찰의 집무집행과 기자의 취재의 자유가 부딪치는 점이다. 공권력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우선돼야 취재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

이날 노조원들 앞에서 강제 진압을 막겠다며 서 있는 통진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고 눈살 찌푸린 시청자들은 경찰이 끝내 현장에서 끝내내 격리시키는 것을 보고 시원해 한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름대로 속셈을 해본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닐 것이다.

특종을 노리고 현장접근을 고수한 것일까. 지나친 경쟁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취재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공무집행이 우선돼야 하고 그 과정을 옆에서 충실히 취재하는 것이 취재의 자유다.

현장에 뛰어들어 노조원, 진압경찰, 취재기자가 영커 자칫 위험한 상황을 빚어가며 현장을 취재했다면 이는 특종이 아니라 명백히 불상사를 조장한 장본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사태 해결을 위한 경찰의 공무 집행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취재기자의 열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날 방송을 시청 하면서 만약에 폴리스라인을 지켜 취재기자들의 취재자유를 보장하고 경찰이 원활하게 공무를 집행할 수 있었다면 경찰의 작전 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고 노조원의 저항과 연행도 훨씬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존재는 물리적 강제력에서 나온다는 법철학의 기초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강제력을 바탕으로 한다. 물론 국민의 민주적 동의를 전제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잘못된 '강제진입' 용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숨어서 불법파업을 계속 이끌어 나간다는 정보에 입각해 사무실에 들어가 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을 6백여 명의 조합원을 동원해서 이를 극렬히 막는 행위는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이다.

공무집행 방해에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행위라는 점에서 강제진입이란 말은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용어로 진실과 사실을 전해야 하는 방송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들이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용어 얘기로 끝맺음을 하려니 한 가지 더 지적해야겠다. 북한이 장성택을 공개 숙청하는 과정이 연일 자세히 전달되는 요즘 상황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은 쫓혀 놓고 뉴스에서 이제는 대놓고 김정은에게 꼬박 위원장이란 직함을 붙여 부르고 있어 국민에게 김정은의 실체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김정은위원장 호칭 듣기 거부

아무리 북한이란 전제를 두고 전하는 뉴스라 하더라도 뉴스 진행자까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김정은 위원장 운운하고 있고 어떤 기사는 1분 30초 남짓한 리포트에서 김정은의 이름을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거명할 때마다 북한이란 말없이 꼬박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불러 듣기 거부하게 만들었다. 김정은을 지칭할 때 북한이란 말이 전제돼야 하고 한 두번 건너 뛰어 김 위원장 또는 김정은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런 우리말이란 점을 또 지적한다.

방송에서 보면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도 북한이란 말없이 주석과 위원장으로 불러 김정은과 함께 그들이 자연스레 우리 안에 들어와 친숙하게 만든 원죄를 면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된다. [국문]

한국사회의 이념논쟁, 오해와 진실

■論壇■



김 화

·본회 전문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현 데일리 리뷰 정책고문

한국사회는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결정적 순간에 역사보다 이념을 선택한다. 이 같은 현상은 일제 식민체제하의 정체성 갈등, 해방 후 좌우 극한 갈등, 6·25사변, 4·19학생의거, 반공 이데올로기, 유신정권하의 민주화운동, 운동권 세력의 좌경화, 386세대의 대거 정계진출, 10년간 좌파 집권, 진보를 위장한 종북세력 등이 한국사회의 담론을 이어오면서 이념이 일상화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서 경제·사회·안보 등 한국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치가 이념의 조정을 받으면서 이념은 논쟁을 지나 전쟁으로 과잉 표출되고 있다.

대선계기 주도권 우파보수로 넘어와

이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나 대하는 사물을 관찰하고 경험하는 사유를 가치관을 심어 표현하는 것이다. 정치를 실행하는 정당은 지지층을 기반으로 이념을 정책화 해서 집권하는 것이다. 인간은 각자의 세계관과 이념에서 나온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념과 더불어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사회 담론은 좌파 진보세력이 주도해 왔다. 민주화 투쟁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내세운 좌파는 투쟁경력과 언변을 무기로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안보보다 남북문제에 편향되었다. 그동안 기득권에 안주했던 우파 보수는 담론개발에 게으르면서 논리에 밀렸다. 그러나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념의 주도권은 좌파 진보에서 우파 보수로 넘어왔다. 뒤늦게 유권자들이 국가·애국 같은 보수적 가치에 비중을 둬으로써 진보연합 문재인 후보는 예상을 뒤엎고 패배했다. 이로써 이념의 주도권은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왔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의 승리는 경제민주화와 무상복지 등 정책 선점도 기여했지만 주동력은 이념의 승리인 것이다. 박 대통령 집권이 1년이 지났지만 야당이 선거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의외의 패배에 대한 분풀이 정치적 태클로 보인다. 국가 안보관을 제외하고 경제정책이나 사회복지는 여야 간 스펙트럼(인식의 차이)은 크지 않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정책의 차이가 크지 않는데도 상상과 보완으로 사회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사회 진화를 퇴행시키는 제로섬 게임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념논쟁이 극렬해진 이유는 진보의 탈을 쓴 종북주의의 창궐 때문이다. 지금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정전 상태에서, 더욱이 근대국가로 볼 수 없는 3대 세습의 김씨왕조와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빠진 종북주의는 진보에서 퇴행한 자폐증상일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종북주의는 진보가 아니다.

한국의 우파 보수는 국가안보, 시장, 자유, 성장, 인권을 주요가치로 삼고 있으며, 좌파 진보는 국제주의, 평등, 분배, 복지를 주요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인권은 처음엔 진보의 가치였으나 최근 보수의 가치로 넘어왔다. 합리적인 재판절차 없이 처형된 장성택 사건을 보면서도 북한인권법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서글픈 현상이다.

세계의 흐름은 공존과 상생

지금 한국사회에서 격렬해진 이념 전쟁은 종북주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세계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다. 특히 일부 진보는 편 가르기가 심해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편견에 침몰돼 있고, 일부 보수는 냉전시대의 반공관에 집착하고 있다. 세계의 흐름은 이념 공존에 이념 상생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시장경제 자본주의와 결혼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프랑스나 한국은 복지정책에서는 사회주의 양자를 들었다. 빈부격차로 불평등이 정치문제로 비화된 자본주의는 한계에 부딪혔고, 사회주의는 역사에서 퇴장했지만 가치는 살아있다.

이념은 인간이 만든 미완성 발명품이므로 보수와 진보가 잘 융합하고 상생해야 사회가 진화하고 나라가 발전한다. 진보학자였던 이영희도 진보만으로는 사회가 구성되고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새의 양 날개처럼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이루고 상생해야 한다고 저서에 썼다.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균형을 잘 유지한 나라가 미국이다. 진보인 민주당과 보수인 공화당이 대략 10년을 주기로 정권을 교체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보수가 10년 공간을 채워놓으면 진보가 10년 분배로 비운다.

우파와 좌파의 근원을 찾으면 한 뿌리다. 1789년 프랑스 혁명정권 삼부회의에서 평민 출신은 좌측에, 귀족 출신은 우측에 앉아 좌파(자코뱅당)와 우파(지롱드당)로 불렸다. 좌파와 우파는 혁명수행 방법론의 차이였다. 좌파는 급진론을, 우파는 점진론을 주장했다. 한국의 우파와 좌파도 작년 대선을 계기로 경제복지 정책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똑같이 무상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다만 재원조달과 방법론에서 약간의 다름이 있을 뿐이다.

우파인 새누리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이념으로 인권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 한반도 평화통일과 21세기 선진일류국가 창조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 좌파인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 한반도 평화통일과 미래지향적 대한민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작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이 선점해서 효과를 톡톡히 봤다. 두 당의 선언적 강령을 비교하면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이념 스펙트럼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 수준 높은 토론 논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출산해야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객관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라야 한다.

좌파는 종북주의와 확실하게 결별해야

그러나 한국사회의 이념은 지식체계가 얇고 지속성이 없어 증오 저주만 증폭시켜 왔다. 좌파는 종북주의와 확실하게 결별하고 편 가르기, 좌파우월주의인 자신은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오만의 편견에서 벗어나고 국가와 애국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우파는 기득권 지키기, 자기들만의 잔치, 친재벌 편향에서 벗어나 소외계층 겨안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불평등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대북관계는 좌우 모두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헌법정신(자유민주주의)에 맞는 대북정책 원칙을 세워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왼쪽 식기와 오른쪽 식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 스프크(숟가락과 포크를 합친 식기)가 내 행정부의 상징이다”고 말했다. 스프크는 좌우의 융합이다. 이념의 이분법적 갈등은 사회에 혼란만 초래하고 발전을 저해한다. 이념의 노예가 될 게 아니라 이념을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세상은 차이와 다양성으로 발전한다. 이제 한국사회의 이념도 끝없는 갈등과 대립에 종지부를 찍고 상대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접합점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이념대립은 불신의 정도를 넘어 소멸되거나 분쇄될지도 모른다. 극단을 선택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더 좋은 가치와 정책을 창출해서 사회를 진화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시대 이념의 본질이다. [4]

진보의 탈을 쓴

종북주의 창궐로

정책차이 없는데도

제로섬게임 전개

갈등 - 대립에 종지부

상대가치 존중하며

접합점 모색할때

본회 기우회 연말대회 성황

대한 언론인회 기우회(회장 정기정)는 작년 11월 29일 오후 2시 종로 3가 바둑 세계기원에서 2013년을 결산하는 연말 바둑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갈고 닦은 바둑 실력을 겨뤘다.

17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열전을 벌인 이날 대회는 A조 우승 이상우 회원, 준우승 문준호 회원, 3위는 천승준 회원이, B조 우승 박영길 회원, 준우승 이용화 회원, 3위는 김세경 회원이 각각

차지 했다.

A조에서는 이상우 회원이 3회 우승을 달성, 최강의 실력을 과시했고 이학주, 김무중 원로 회우가 새로이 모습을 보였으며 처음 출전한 천승준 회원이 3위에 입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B조에서는 2회씩이나 우승한 이성호 회원이 중도 탈락하는 이변을 낳았고 도준호, 신대근 회우가 얼굴을 나타냈다. 회원들은 대회가 끝난후 기원 옆



대회후 기념 촬영.

한일관에서 송년 회식을 갖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이날 대회에는 차기 회장 후보로 나선 김은구, 이병대 회우가 대회를 찾아 격려해 주었고 두분의 조그만 협찬으로 양말세트가 참가상으로 주어졌다. 기우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입상자 제외)

고덕환, 김윤석, 김무중, 김윤재, 도준호, 민정기, 백환기, 성낙오, 신대근, 윤기병, 이성호, 이시현, 이억순, 이종기, 이태

영, 이학주, 장두원, 정기정, 조봉균, 주종환, 최연석, 최중수, 한경석. [4]

민란과 쿠데타까지 들먹이는 나라

“멀쩡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던가요? 민심을 이해하고 민심을 살리는 사회와 정치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國害의원이라 불리는 국회의원

한 일간지의 기자가 쓴 칼럼에서도 비슷한 글을 읽었습니다. 스크랩을 뒤져보니 그 글의 제목이 ‘國害의원’이었습니다. 그 기자는 칼럼에서 “국회의원 배지가 이유 없이 사람을 거칠게 돌변시킨다. 전·현직 국회의원 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이들이 적지 않지만 의원 배지를 단 이후 돌변한 모습을 보고 깜짝 깜짝 놀란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쓴 뒤에 “국회에 찍히면 정부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시킨 브레이크 없는 의회권력의 기세가 하늘을 찌른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신문 광고에서는 ‘利敵(이적)국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당혹감과 공감을 느끼면서 “청와대는 내말을 들어야 하고 장관은 내 맘에 들어야 한다”는 듯 기세등등한, 때론 독이 잔뜩 오른 것 같은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사회부기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의 일들에 하도 이해가 안돼서 정당 출입 기자에게 “정치인들 저러는 거 상식에 벗어난 것 아니냐?”고 물었지요. 한심한듯 날 쳐다보던 그 기자가 “정치란 일반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으로 하는 것이야. 정치인을 일반 상식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수준 이하지”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머쓱했지요. 그래 정치는 저 윗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나 같은 속물은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나 열심히 챙겨야겠다고 고개를 숙였던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시간 여유도 있고 해서 온갖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정치기사도 자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심도 갖게 됐습니다. 평론가들도 참 많이 보지요. 그러면서 철없던 젊은 기자 시절에 생각했던 상식의 기준이 절대적 선(善)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라도 상식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고 정치도 상식적인 정치가 돼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생각입니다.

지금 패거리로 갈라진 정치권의 행태, 언론계의 모양새, 갈라진 나라꼴을 보면서 “개만도 못한 추악한 인간쓰레기”라고 한 북한 방송의 욕설을 받아 자기 욕심으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만들고 있는 지도자라는 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치를 비롯해서 노사관계와 교육현장 등에서도 비슷한 것을 많이 봅니다. 왜 이리됐나? 어설픔게 진단해봅니다. 3가지를 짚어 봅니다.

첫째가 이기주의입니다. 둘째는 압축 경제성장 탓이구요. 셋째는 과속 민주주의 때문입니다. 먼저 욕심과 이기주의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간 본성은 착하다는 맹자의 성선설과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순자의 성악설을 비교한다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고 답해야 낙제를 면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요소(善과 惡)를 함께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칼 마르크스가 주창한 공산주의를 들여다보면 맹자의 성선설과 비슷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산주의의 목표를 쉽게 표현한 것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멋진 이상향을 만들기 위한 구호지요. 그게 이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현이 불가능 했던 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약점 때문이었음을 동유럽 공산사회의 붕괴 현장을 직접 취재하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했지만 자기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아닌 일에는 열성을 보이지 않더라구요. 게을렀지요. 국회 선진화법을 보면서 공산주의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몸싸움 없는 국회, 총돌이 없는 국회’ ‘얼마나 좋나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한다’ 던 공산주의 목표와 닮지 않았나요. 국회선진화법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지요. 국회의원들이 욕심과 이기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기 당, 자기 패거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익을 앞세울 때에만 가능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투표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패거리만 감싸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 챙기려고 하는 나라에서는 국회나 국가의 선진화는 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식 그리고 국민 수준이 선진화의 가늠자입니다.

다음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후과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는 모두 너무 편해 졌고 너무 풍족해졌습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힘든 일하기 싫어하고 하려고도 않습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서도 힘든 일은 거들떠 보는 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욕심은 한 없이 부풀어졌지요. 힘들여 얻는 것이 값진 것이라면 요즘 세상에는 진짜 값진 것이 아주 드물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배도 고파 봐야하고 어려운 고비도 당해봐야 하지 않나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한탕 건지는 로또 복권식 삶을 희구하는 이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 아닌가요. 작게 이룬 것에도 감사해야 하는 데 역대 연봉을 받으면서 더 받아야 한다고 파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사회가 풍요의 뒤편에 걸렸다고 걱정하는

■ 태평로에서 ■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
·전 KBS LA지국장
·수필가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비상식 해법 찾을 수도

정치권 자성하고

언론도 도와서

정상적 국가사회

이루게 해야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민주주의의 단맛에 취해버린 후과라고도 하지만 우리 민주정치의 현실은 정말 절망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순박해 보이는 50대 근로자가 TV뉴스를 보다가 한 국회의원이 나오자 “저 새끼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가 옆 사람의 그래도 심하다는 나무람을 듣고 무안해 하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심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성이 없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익어가는 과일과 같다고나 할까요. 지나치게 익으면 떨어져 썩게 되겠지요. 바람직한 민주주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고 남을 이해하고, 위하는 심성(心性)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민주 회복’을 주장하는 이들의 말을 들으면 한심해 집니다. 민주회복이라니 언제 완성된 민주주의가 있었던가요. 자기 패거리들의 집권 시기를 민주주의의 완성기로 본다면 미친 사람들이지요. 민주주의가 지속적인 발전임을 간파하고 선동적 의미로 쓰는 것 같아 답답해집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욕심과 이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나 일부 언론의 행태는 집권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된다는 소름끼치는 환각에 잠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을,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부터 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라 일을 잘하고 국민이 행복해 지는 길을 가면 박수를 쳐 줘야 하고 그러길 희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고 정부가 실책을 해서 민심이 이반되기만을 바라고 그 쪽으로 몰고 가려는 것 같은 이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일반 국민의 책임도 크지요.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교연과 망언에 휘둘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하고 언론이 바른 길을 잡아 줘야 하는 데 이게 정말 어렵고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다보니 온갖 말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현상이고 민심입니다. 이런 말들도 귀담아 들어야 하지요.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면?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TV 좌담에서 한 말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 될 거고 그렇게 주장하는 야권의 전략은 정쟁을 계속해서 대통령을 힘들게 하고 협집을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예 대통령이 이들의 주장을 기습적으로 받아 들여 선거를 다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면 국민은 박근혜와 문

재인 중 누구를 찍을 것인가. 그 전직 장관의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때부터 5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박정권 집권이 1년 더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면?

김황식 전 총리가 말한 바와 같이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럴 경우 아예 정당까지 해산하고 해방 후 제헌국회 구성처럼 지역구위원을 먼저 뽑고 이들이 정치적 신념과 이념에 따라 정당을 만들도록 하면 새로운 정치판이 구성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문제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별도의 비상조치법이 마련돼야겠지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비상식적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지요. 필요하면 법도 고치고 비상조치라도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선거로 안 되면 민란을 통해서라도 집권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놈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쿠데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자(者)도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국민투표를 통해 새 헌법을 만들고 내각 책임제를 도입하거나 지역감정을 승화시키는 강소국가를 실현 시키든지 하는 특단의 경우도 상상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경우 대통령이 비상조치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안정될 때까지 18개월만 대통령의 직을 유지한다면 18년 통치한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정말 나라를 위한 총정의 대통령으로 역사의 존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을 주로 겨냥한 경고의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먼저 정치권이 자성하고 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언론도 도와 줘야 하구요. 종교계와 시민 단체 등도 세상을 바로 봐야 합니다. 역사에서는 상상이 안 되던 일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요즘 동북아 정세가 구한말과 비슷한 형국이라고도 합니다. 북한 상황도 고민한다면 더 어려운 형국 아닌가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권의 핵심 국정 모토가 ‘비정상(非正常)의 정상화’라고 합니다. 상식으로 만들어지고 다져지는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기자, 시인, 공직자로 우뚝 ... “품위있는 삶”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66)

회우초대석

인터뷰 :

신석초 선생이 필명 지어줘

그 유명한 김후란 회우를 인터뷰한다는 기대가 컸다. 서울 남산에 있는 자연을 사랑하는 ‘文學의 집. 서울’을 찾았다. 12월18일 오후 2시의 남산 기슭은 제법 추웠다. 안기부가 있던 곳이라는 선입관 때문인가 조금은 무겁고 버거운 느낌이었다. 주변 나무들의 모습과 문학의 향기가 이름만큼이나 더 아름다워 졌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김후란 이사장은 34년생이라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게 건강한 모습이었고 품위와 아름다움을 연출했다. 그리고 권위도...

-漢韓辭典을 찾아봤습니다. 후란이란 필명이시지요. 후(后)자의 훈(訓)이 임금, 왕비, 벼슬이라는 뜻이던데요.

“네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시절 문화부장이 시인 신석초 선생님이셨어요. 신석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현대문학’지에서 시인으로 등단했고 그러면서 기자이자 시인이 되었지요. 신석초 선생께서 후란이란 필명을 지어주시면서 허난설헌 이후 제대로 된 시인이 되라 하시던 기억이 새롭네요.”

김 회우는 시인생각이 퍼낸 한국대표 명시선 100에 뽑힌 본인의 시집 ‘노트북 연서(戀書)’를 챙겨 주었다.

교장실에 동시 걸리기도

-상투적인 질문을 드리기보다 생각하신 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고등학교 때 문예반 활동을 많이 했구요. 어릴 때 부산에 살 때였어요. 아버님이 공무원이셨는데 제가 7남매 중 셋째 딸이었지요.

가족들을 모아 놓고 노래자랑도 시키시고 집둘레 달리기도 시키셨어요. 그리고 가족 백일장도 열었는데 그때 제가 ‘자장가’란 동시를 지어서 칭찬을 듣고 언니와 동생들 앞에서 낭송했던 일도 있었답니다.

부산사범 병설 중에 다닐 때는 제가 지은 동시가 교장실에 걸리기도 했어요.”

-기자가 되신 거는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다닐 때 주요한 선생님이 운영하시던 종합교양지 ‘새벽’의 기사를 했고 그게 인연이 돼서 특채로 한국일보 기자가 됐어요. 1957년이었어요. 기자생활이 너무 바빠서 대학복학은 못했고요. 나중에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모교를 빛낸 공로’로 명예졸업장을 주더군요.

기자는 발로 뛰어야 한다고 한 장기영 사주의 말이 생생합니다. 그 때는 편집국장을 따라 기자들이 자주 회사를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을 거쳐 부산일보 논설위원까지 23년 간 기자생활을 했어요. 부산일보

논설위원 때는 서울에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사설 3편과 칼럼 1편씩을 써서 밤기차 편으로 부산 본사에 보내곤 했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어요.”

3인의 여기자 종군 취재단

-기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요?

“1967년 문화부 차장 때 한 달간 월남 전선을 종군 취재했던 일입니다.

동아일보의 박동은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의 이영희 기자와 함께 3인의 여기자 종군취재단이었죠.

그 때 취재한 것을 송고하면 1면에 실리고는 했지요. 한번은 헬기타고 군막사를 방문해 지휘자와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떠난 후에 그 막사가 포격을 받아 날아갔다는 끔찍한 말도 들었어요.

여기자들은 병원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젊은 병사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당시 주월 사령관이 얼마 전 돌아가신 채명신 장군이었어요. 멋지고 품위

있는 장군이었어요.

취재를 마치고 귀국할 때 채 사령관께서 고생들 했으니 일본을 거쳐 가는 일반 여객기를 이용하라고 권했으나 한국으로 바로 가는 군용 수송기편을 고집했지요. 수송기 안에서 전사자들의 유골함들이 놓인 모습에 또 한번 가슴이 아팠답니다. 차마 기사로는 쓰지도 못했어요”

-1979년 언론 통폐합 때 논설위원을 그만두셨는데 그 뒤로는?

“서울지사가 철수하게 되자 부산으로 와서 근무하라는 회사의 주문이 있었지만 가정주부로서 그럴 수가 없어 그만두었지요. 그리고 KBS 라디오의 일일 시사칼럼을 썼습니다. 원고지 25장씩을 매일 썼어요. 어쩌다 라디오에 출연했던 게 인연이 돼서 당시 박근주 라디오 본부장이 특별 부탁을 했었어요.

1983년 정부에서 설립한 여성문제연



남산기슭 ‘문학의 집. 서울’ 앞에서 기자와 시인, 공직자로 살아온 삶을 회고하며 ‘품위있는 삶’

中·高때 문예반 활동 ... 대학때 한국일보 특채돼 23년 월남전 취재 큰 보람 ... ‘문학의 집’ 매일출근 창작-외

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현재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이 되었다가 원장 직을 맡아 7년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김 회우는 공연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민간방송설립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위원장,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정부공직자윤리위 위원 등 공직을 맡았고 2001년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 서울’을 창립해서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김 회우가 다음 일정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나머지 질문은 이때 일로 주고받기로 했다.

다음은 시인(詩人) 김후란의 이야기이다.

김회우가 2007년 ‘문학의 집. 서울’ 73호에 직접 쓴 -내 문학의 뿌리와 작품세계-중 일부를 간추림으로 대신한다.

문단사상 최장수 동인활동

“나는 마음속으로 외친다. ‘시를 읽자’ ‘시를 먹자’ ‘가슴에 꽃 피우자’고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을 수 있다. 문학소녀로 자란 나는 여학교 시절 교내 백일장에서 장원도 하고 문예부장도 하면서 세계문학전집 독서와 글쓰기에 몰입했고 강한 자식에 이끌리듯 문학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했다고 할 수 있다. 1963년 여성시인들만의 ‘청미(靑眉) 동인회’를 결성하여 오늘까지 우리 문단 사상 최장수 동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서로가 성숙해 가는 문학적 동력이 되었다고 본다.

나는 50여년 문학생활에 11권의 시집을 상재하였다. 시로서 소화하지 못한 정력을 적지 않은 산문집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나의 시는 대체로 존재의 확충 의욕에서 발아(發芽)하고 있다고 하겠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부의 충동에 의해

실버문화 가꿔가야죠”

金后蘭

- 전 한국일보 기자
- 전 한국여성개발원장
- 현 문학의 집, 서울 이사장

글 = 호천웅 (본보 편집위원·수필가) 사진 =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실버문화’를 강조하는 김후란 회우.

연간 언론계 생활 부활동 싹틈없어

시를 쓰고 있다. 이러한 충동이 있는 동안 나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항상 젊은 정신으로 의욕적으로 시를 쓸 것이다.”

이어진 이메일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은 생략했다.

“주말만 제하고는 매일아침 남산자락에 있는 문학의 집으로 출근합니다. 평생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해 온 탓으로 습관적인 생활패턴입니다. 시간이 맞으면 외부행사에도 나가고 문학창작활동의 숙제도 하고…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걷는 걸 좋아하고 이것이 운동이 된다고나 할까요.

아들이 돌인데 큰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주가 남매인데 이제 다 커서 성인들만의 가족구성이지요. 가족백일장을 하기엔 인원이 적어서 못하고 평소 책을 많이 읽는 분위기 조성이 그들에게 도움은 되었겠지요.

작은 아들은 역시 남매를 두고 있고 10여년 째 스위스에 살고 있는데 오래전에 서울에서 간행되는 문예지 ‘시대문학’에서 詩로 등단을 했지요.

2001년 ‘문학의 집’ 출범

문학의 집은 2001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해서 이제 13년차가 됩니다.

내가 한국여성문학인회 회장으로 있을 때 독일작가들과 심포지엄을 하는데 ‘함부르크문학의 집’에 관한 소개를 받았고 우리도 그런 문학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지요.

서울시에서 남산자락 예장동에 전 안기부장 공관을 빈 집으로 보존하고 있는걸 알게 되어, 서울시 문화예술국에 우리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건물 사용허가원을 제출했습니다. 고건서울시장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유한킴벌리 문국현사장과 ‘생명의 숲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었고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운동을 하고 있던 유한킴벌리가 주 후원사가 되어주어 문학의 집이 창립되면서 건물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주었지요. 이때 무거운 철대문을 없앴고 지금도 대문이 없어요.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 누구나 오게 하려는 의도였고 그래서 모든 문학행사는 무료입니다.

문학의 집은 문인들과 시민들의 만남을 통해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그렇게 문화적인 사회와 문화 국가가 되게 하려는 곳입니다.

실버 파이팅! 소리가 마음으로부터 울려나오게 하는 사회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월은 무섭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가족과 사회에 누를 끼치지 않겠지요. 나 자신 아직까지는 할일이 많다고 하겠고 읽어야 할 책도 많고 작품도 열심히 쓰면서 시간을 소중히 가꿔가려 합니다. ‘품위있는 실버문화’가 노령화사회에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들 자신이 노력해야겠지요.”

신양대학 특강 못잊을 체험

“나는 가톨릭신자인데 아직 신양생활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만 인간생활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정화작용을 해주는 게 종교요, 보이지 않는 큰손이 나를 이끌어 준다는 믿음, 이것이 종교의 힘이겠지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가장 힘들었던 체험을 들라면… 참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행복들이나 시련의 고비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상사가 아닌가요. 사람 사는 세상에 작은 파도 큰 파도를 겪으면서 사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언제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는 행복한 사건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나의 일생에 오직 한 번의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㉓

치아·치주질환이 치매발병 높인다

치아와 치주질환이 중년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치매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보고가 속속 발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최근 학술지 미 국 치 과 협 회 지(The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는 치



이광영

- 본회 논설위원
-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아결손과 치주출혈이 중년의 인지기능을 떨어뜨린다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치과생태학교실 슬라드(Gary Slade) 교수의 연구결과를 실었는가 하면 학술지 알츠하이머병지(Journal of Alzheimer’s Disease)는 치주질환이 알츠하이머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플로리다대학교 치과대학 케사발루(Lakshmyya Kesavalu) 교수의 연구결과를 게재했다.

슬라드 교수는 치아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 보기위해 1996~98년 나이가 45~64세 사이 중년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단어 기억과 사용, 숫자계산 등)와 치아와 치주건강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억력과 사고력검사에서 치아가 온전한 경우 전혀 없는 사람에 비해 인지기능 점수가 월등히 높았으며 치아 수가 적고 치주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도 낮게 나왔다. 슬라드 교수는 이에 대해 구강에 문제가 있으면 저작기능장애로 뇌기능을 돕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생기는 일일 수 있고

치주질환의 경우 염증성 세균이 혈류를 타고 뇌로 들어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케사발루 교수는 알츠하이머치매 환자 10명과 치매가 없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뇌 세포를 검사했는데 알츠하이머치매 환자

4명에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발견한 반면 치매가 없는 환자에게는 그러한 세균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더라며 이는 분명 알츠하이머치매와 치주질환 세균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안에 있는 세균이 음식을 먹든가 이를 닦든가 치과치료를 받을 때 혈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혈류를 통해 뇌로 들어가 뇌 조직에 퇴행성변화를 일으켜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술지 미국노인병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 Society)는 2012년 치아와 치주를 잘 관리하는 사람의 경우 치매발생 위험이 낮다는 캘리포니아 대학 치과 교수인 힐(Annila Paganini-Hill) 박사 팀의 연구결과를 실었고 뇌기능 학술지 행동과 뇌기능(Behavioral and Brain Function)은 2010년 고령자에서 치아손실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소실이 더 심하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4]

체험이었습니다.

2004년 11월, 명동 대성당에서 열린 제 1회 하상신앙대학 강사로 두시간 특강을 했던 일입니다. 가톨릭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손병두회장)주최로 처음 개설한 기획행사였습니다.

주 1회 열리는데 12명의 초빙강사가 어마어마했어요. 김수환추기경을 비롯해서 당시 정진석대주교(서울대교구장) 최창무대주교(광주대교구장) 차동엽신부(미래사목연구소장)등이 강사로 참여했고 평신도 대표로 노길명교수(고려대)와 시인이며 여성인 김후란이 끼어 있었거든요.

주제는 ‘현대인을 향한 영혼의 울림-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였습니다. 문인 대표로서 그리고 여성대표로 나서야 하는 나의 역할에 부담이 너무 커서 몇번이나 사양하자 나에게 ‘문학과 인생’이라는 강의 제목을 주면서 종교일색보다는 신선한 특강이 되리라는 기대가 크다고 주최 측에서 격려를 해주더군요.

처음 5백명 수강신청을 받기로 했다가 신청자가 쇄도하는 바람에 1천명을 받고 대성당에서 치르는 큰 행사가 되

었지요. 문학과 인생, 문학과 종교를 생각하는 강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친지들에 둘러싸이자 가슴이 훅 더워지면서 ‘아, 다행이다. 무사히 마쳤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지요. 그 순간 나는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김 회우가 회사후소(繪事後素)라는 말씀을 주었다.

그림을 그리려면 먼저 흰 바탕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삶의 자세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회우들에게 자작시(自作詩)를 선물했다.

연필로 쓰기

부드러운 연필로/그 이름 써본다
지우개로 지우고/쓰고 또 쓰고
인생도/다시 살 수 있다면
나무향기 그윽한 연필로/쓰고 싶은 이름
쓰고 또 쓰듯이 [4]

세계 3대 장수 지역 중 코카사스의 ‘압하지야’,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그 다음이 파키스탄 북쪽의 ‘훈자’다

‘훈자’ — 러시아와 중국과 인접한 파키스탄의 북쪽끝, 여섯 개의 산맥이 모이고 엉켜 또아리를 튼듯한 훈자 계곡은 2,000년 동안 10,000명 내외의 토착민들이 외부세계와 고립된채 살아온 성채와 같은 마을이다.

현재 인구는 30,000명 내외. 미국의 대통령(아이젠하워) 심장치료를 담당했던 전문의 ‘더들리 화이트’ 박사를 비롯해 여러사람의 의사들이 ‘훈자’를 답사해서 장수자들의 건강상태를 보고한바를 간추리면 “믿기 어렵겠지만 청춘의 샘이 실제로 히말라야 산속에 있다”고 했다. 화이트 박사가 무작위로 진찰한 25명의 훈자 노인들 중 누구도 심장질환, 고혈압, 혹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이지 않았고, 이들은 양쪽 눈의 시력이 2.0에 충치가 하나도 없었으며 혈관, 근육, 장기, 호흡, 뼈에 관계된 질환을 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다른 의사들의 보고도 거의 같다.

훈자인의 놀라운 무병장수는 어디서 오는가? 침침산중의 그 훈자 땅이 건강을 거저 갖다주는 천혜(天惠)의 땅은 아니다, 계곡속의 땅이 비록 비옥하다 하더라도 평지가 좁기 때문에 하늘을 솟아오른 가파른 산등성이를 계단식으로 갈아서, 논밭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험준한 생태조건이 역으로 그들을 강인한 건강장수족으로 만든 것이다. 탐방 보고서를 쓴 의사들이 보는 바는 거의 같다.

세계 최강의 건각족(健脚族)들이 훈자인이라고 했다. 에베레스트 산 원정에 네차레나 참여한 전설적인 등산가인 ‘에릭 싯틴’은 등반할 때 종종 훈자인을 짐꾼으로 썼는데 훈자인이 네팔의 전설적인 셰르파(길안내와 짐꾼역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등산가라고 했다.

발이 튼튼하면 심장이 건강하다고 한다.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아주 신선한 먹거리를 적게 먹고 설새없이 움직이는 그들의 생태는 체지방을 태워버리는 동아줄같은 강인한 체구를 만들어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퇴행성 질환의 접근을 막아낸다고 볼 수 있다.

최근까지 외지인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다는 ‘훈자’에는 노인 존중과 서로 화목하는 그들 고유의 문화는 있어도 외지인과 함께 묻어 들어오는 문명은 없었다. 따라서 전기나 기름으로 움직이는 어떤 동력(動力)도 없었으며 병원, 약국, 술집, 경찰, 감옥, 범죄(살인 등)등 문명의 어떤 찌꺼기도 없는 청정지역이었으므로 이곳 사람들에게는 심장병, 관절염, 고혈압, 당뇨, 결핵, 천식, 간질환, 쓸개질환, 변비같은 지상의 흔한 질병이 없었다는 것이다.

‘훈자’에 문명이 있다면 높은 산등성이를 계단식으로 갈아서 만든 논밭에 계곡의 물을 퍼올리는 관개(灌溉·논밭에 물을 댐)기술이다. 외지에서 들어온 물대는 기술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계곡의 청정수를 까마득한 계단식 논밭으로 퍼올리는 기계식 관개기술은 세계의 위대한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 계단식 논밭에 훈자인은 살구, 복숭아, 배, 자두, 포도, 체리, 오디, 무화과, 그리고 여러종류의 멜론을 포함한

새로쓰는 **병은 낫는다** <5> 양생법의 뿌리와 열매

百壽의 조건, 백세를 사는 힘 (中)

다양한 과일을 재배하고 여기에도 여러 종류의 야생 베리를 곁들여 일년사시절 싱싱한 과일을 날로 먹고 말려서도 먹는데 그들이 가장 즐겨먹는 과일이 살구라고 한다. 과수원 외에도 집집마다 살구 나무를 심어 봄이면 ‘훈자’는 온 동네가 살구꽃으로 뒤덮이는 행화촌(杏花村)이 된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과외다. 살구나무는 중국이 원산이라서 그렇겠지만 옛 한시(漢詩)에 살구꽃 마을이 더러 등장한다. 당대(唐代) 시성(詩聖)으로 불리는 두보(杜甫)와 함께 이두(二杜)로 불리는 ‘아방궁부’ (阿房宮賦)의 두목(杜牧)은 “주막이 어디메뇨, 물으니 목동은 멀리,



권도홍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전 주부생활 부사장

있다. 그러나 살구를 날로 많이 먹으면 근골(筋骨)을 상하게 하고 열이 많아 아이들이 많이 먹는것을 금하고 있다. 살구씨에 개고기의 독성을 푸는 약성(殺狗毒)이 있어 보신탄집에서 식후에 살구씨를 제공하는 것은 그 약성 때문이다.

그러나 살구가 유용한 과일이라 하더라도 훈자인의 건강장수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압하지야’, ‘빌카밤바’, ‘훈자’ 세 장수지역의 백세를 사는 건강요건은 청정지역의 공기와 물, 그리고 낙천적이며 화목하며 노인을 존중하는 그들 특유의 문화, 설새없이 움직이는 운동의 지속성, 먹거리의 신선도와 절제(소식)로

병없이 살다가 가는 ‘절제의 힘’

살구꽃 피는 마을을 가리키네(借問酒家何處有 牧童遙指杏花村)”라고 읊었다. 내가 늘 지나다니는 종로의 인사동거리 중국물건 파는 잡화점에서 돌도장 하나를 산 적이 있는데 인면(印面)에 이르기를 “강남에 봄비내리니 살구꽃이 피네(江南 春雨 杏花)”. 목은 돌도장 속의 서정(抒情)을 산 것이다. “봄비 속의 살구꽃은 강남의 좋은 경치로다.(杏花春雨是江南的好景)”이라고 한 글귀와 이어진다. 살구는 과일이되 중국의 옛 의서(醫書)마다 등장하는 약성을 지니고 있다. 살구는 “껍질이 얇고 향기로우며 맛은 달다(皮也薄 清香味甘)”. 살구의 신맛은 사과산(酸), 레몬산, 구연산 등의 유기산(有機酸)이며 단맛의 주체는 포도당, 과당(果糖)이며 비타민류로는 비타민A, 인, 철분,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 특히 말린 살구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열성(熱性)이라서 냉증을 풀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피로회복으로는 과일 중에 살구가 제일이라 봄이 되면 훈자마을은 살구꽃으로 뒤덮이고 수확기가 지나고 나면 집집마다 지붕은 말리는 살구로 주황색으로 물든다고 한다.

한약제로 쓰는 행인(杏仁)이 살구씨다. 본초강목에 의하면 행인에는 약간의 독이 있으나 심장과 폐를 윤택(潤心肺)하게 하고 폐열을 없애며 대장을 윤택하게 하여 완화성(緩和性)이 있기 때문에 변비를 고치는데 도움이 되며 하제(下劑·설사약)로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살구를 깨끗이 씻어 하루에 세 번, 한번에 2~3개씩을 날로 먹으면 만성인후염을 고치고 당뇨병에도 효험이 있다는 기록(中國食療本草新編)이

이루어지는 식습관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 장수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양의 전곡(田穀·발곡식)을 먹는데 ‘훈자’에서 주로 먹는 곡물은 밀, 보리, 수수, 메밀, 옜주라고 하는 단단하고 진주처럼 생긴 씨가 달린 풀을 먹는다. 훈자인의 식단에 큰 비중을 갖는 채소로는 푸른색 채소가 주가 되며 겨자잎, 시금치와 상추, 당근, 순무, 감자, 무와 같은 근채류와 콩과 병아리콩, 렌즈콩 같은 다양한 콩과 여러종류의 호박이 들어간다. 그리고 요리에에도 넣고 약으로도 쓰기 위해 박하와 백리향(높은산의 바위에 나는데 경남북, 전남, 강원, 함북에 분포)같은 허브를 재배하는데 백리향의 줄기와 잎은 약용으로도 쓰고 소스의 원료로도 쓴다.

훈자인의 건강에 대해 현지답사한 보고서 중 하나는 “훈자인은 남녀를 불문하고 죽기전까지 100세 혹은 그 이후까지 들판에서 일한다고 썼다. 그리고 식구들과 저녁밥을 함께 먹고 잠자리에 든다는데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 노인이 밤새 자다가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을 발견한다고 했다. 건강하고 마음 편하게 오래 살다가 밤사이 살며시 장지문을 열고 이 방에서 저방으로 건너가듯이 가는 마지막 의식(儀式)은 가장 이상적인 결별 방식이라 하겠다. 중국의 고서에 등장하는 ‘병없이 살다가 간다(無疾而逝)’가 바로 그것이다.

장수지역의 토착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장수 하는지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대충 짚어 보았지만 중요한 덕목은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일관되게 지키는 생활신조, 곧 절제(節制)

에 있는것 같다. 목초지가 좁기 때문에 동물사육이 어렵고, 따라서 식단중 동물성 음식 비율이 아주 적다. ‘압하지야’만 10%일뿐 ‘빌카밤바’와 ‘훈자’는 1%에 불과하다. 그들이 먹는 먹거리중 육류는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지방원(脂肪源)으로서 견과류를 섭취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고, 혈관은 짐승고기의 기름기에 의해 막히고 늙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그렇다고 채식주의자가 될건 없다하더라도 짐승고기를 덜 먹고 신선한 채소를 넉넉하게 섭취해야 할것이다.

그들은 조금 먹는다.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은 성인남자의 경우 1,900칼로리 정도다. ‘빌카밤바’의 어른들은 1,800칼로리다. 반면에 탄수화물의 섭취열량은 ‘압하지야’ 65%, ‘빌카밤바’ 74%, ‘훈자’ 71%다. 곡채식의 섭취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식단중 식물성 음식 비율은 ‘압하지야’ 90%, ‘빌카밤바’와 훈자는 99%다. 그들의 식습관이 어떤 먹거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숫자들은 한 눈에 드러내고 있다.

전기도 없고 기름으로 밝히는 조명시설도 없으므로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일어나서 집 주변의 텃밭에서 채취한 신선한 찬거리로, 비료도 농약도 사용하지 않은 발곡식으로 지은 주식(밥)과 함께 튼튼한 이빨로 죽이 되도록 씹어서 먹고, 높은 산속의 논밭에서 장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그들의 생활양식은 군살을 허용하지 않는 강건한 것이다. 과체중은 없다. 나이 많은 이웃어른을 존중하고 적게 가진 사람도 많이 배풀려고 하는 선한 마음 또한 그들의 건강장수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케네스 장(Kenneth Chang), 한국사람이다. 세계적인 장수학자로 알려져 있다. 1926년생. 연세대의과대학을 졸업하고 6·25 동란이 끝날 무렵인 1953년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대학 의학부 대학원을 수료, 병리(病理)전문의로서 임상(臨床)·해부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적혀있다. 그의 저서인 『백세를 사는힘』(일본판)책의 날개에 소개된 바다. 그는 미국 템플대학 의학부 교수가 되어 심장학과 면역학을 가르쳤다.

케네스 장 박사를 나에게 소개한 사람은 몇해 전에 작고한 이정석(李貞錫)씨다. 대한언론인회 회장을 지낸 그는 나와 동갑인데다 동아일보사에서 현역 시절을 함께 보낸 동료다. 10여년전 출판사 ‘청산’을 경영하던 나를 찾아온 이정석씨가 케네스 장 박사가 자기의 친구라고 하면서 그의 저서를 출판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것 좋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나는 즉답으로 그러마고 했다. 그러나 출판이 불발로 끝난 것은 그쪽의 요구가 초판 10만 부였기 때문이다. 초판에 10만부를 찍는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우선 인쇄(印稅)를 책값 1만원일 경우 1억원을 지불해야 되므로 ‘괜찮은 제의’는 불발로 끝났다.

그 뒤 일본에서의 출판정보를 꿰고 있던 나에게 케네스 장 박사의 『백세를 사는 힘』이 일본판으로 출판된 사실이 알려졌으므로 나는 곧장 그 책을 주문해서 받아볼 수가 있었다. 『百壽의 조건, 백세를 사는 힘』하(下)편에는 그 책의 내용을 쓰자. ㉞

溫故知新

장성택과 調信의 꿈



황원갑

- 본회 전문위원
- 전 서울경제 문화부장
- 소설가
- 역사 연구자

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는 죽더라도 한 구덩이 안에 묻히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온 것이랍니다. 으흐흐흐...”

그 말을 듣자 조신이 너무나도 기뻐 어쩔 줄 몰랐다. 그리하여 김씨 처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그로부터 무려 40년을

함께 살았다. 그렇게 더불어 살면서 자식을 다섯이나 낳았으나 가난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집은 속이 텅텅 빈 네 벽만 남았고, 일곱 식구가 끼니도 제대로 이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견딜 도리가 없어 조신은 식구를 모두 이끌고 집을 떠나 동남길에 나섰다. 집을 떠난 지 어언 10년, 온 식구가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돌아다녔건만 사정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없었다.

명주 해현 고개를 지나는데 드디어 열다섯 살 난 큰아들이 굶어서 죽어버렸다. 남은 식구가 통곡을 하면서 길가에 묻고 다시 길을 떠났다. 조신이 아내와 나머지 네 자식을 이끌고 우곡현에 이르러 길가에 움막을 엮어 살았다. 조신 부부가 늙고 병들어 거동조차 불편하자 열 살짜리 딸아이가 동남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사나운 개한테 물려 울부짖으며 움막 앞에 와서 쓰러져버렸다. 조신 부부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울 따름이었다. 마침내 아내가 눈물을 흘치더니 입을 열었다.

“제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에 당신은 젊었고 얼굴도 잘 났으며 옷차림도 깨끗했지요. 맛있는 음식 하나라도 생기면 당신과 내가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지 않는 웃감이 생겨도 우리는 나누어 웃을 지어 입으며 벌써 50년을 더

불어 살았어요. 이처럼 우리 정분과 사랑은 그지없이 아름다웠건만, 근래 들어 쇠약해져 여기저기 안 아픈 곳도 없이 해마다 없던 병도 생기고, 굶주림과 추위는 나날이 더해 가는 데 누구 하나 음식 한 그릇 나누어주는 사람도 없이 우리를 멀리하고, 아이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데 어느 겨를에 우리가 부부의 사랑을 나눌 것이며 즐거운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겠는지요? 오오, 붉은 얼굴에 아리따운 웃음도 풀잎의 이슬처럼 사라져버렸고, 지초 난초 같던 꽃다운 약속일랑 소소리바람(회오리바람)에 버들꽃처럼 흩날려 없어지고 말았군요! 여보, 당신은 나 때문에 괴로움이 끊일 새 없고, 나 또한 당신 때문에 걱정이 끊일 새 없으니 이제 어쩌면 좋으리까? 우리가 어쩌하여, 전생에 무슨 죄가 많기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새 여러 마리가 함께 모여 굶주림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로 나누어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가고 머무름을 우리 뜻대로 못 하고, 만나고 헤어짐도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니, 이제부터는 서로 헤어지는 것이 어떨는지요? 으흐흐흐...”

조신이 듣기에 참으로 난감하고 부끄러웠으나 어쩔 도리가 없어 부인의 뜻대로 하기로 작정했다. 그리하여 부부가 각각 남은 아이 둘씩 나누어서 헤어져 각자 길을 떠났다. 작별하기 전에 아내가 말하기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터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라고 했기에 조신은 두 아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부부가 작별을 하고 길을 떠

나려는 참에 잠을 깨어보니 타다 남은 등잔불이 가물거리는데 밤이 이미 깊은 뒤였다. 그렇게 해서 밤이 가고 아침이 밝았다. 조신이 아침에 보니 밤새 머리 카락이 죄다 하얗게 세고 정신이 멍한 것이 도무지 인간세상 같지 않았다. 세상살이가 지난 밤 꿈처럼 그렇게 괴로운 것이라면 도무지 살고 싶지도 않았다.

아아, 내 탐욕이 이처럼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참으로 인간의 한 삶은 어리석은 미망(迷妄)에 불과한 것이구나! 조신은 관세음보살을 대하기가 그지없이 부끄러웠다. 조신이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었던 해현에 가서 그곳을 파보니 돌로 만든 미륵불상 한 구가 나왔다. 조신은 그 미륵상을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본사로 돌아가 장원 관리의 소임을 내놓고 자기 재산을 정리하여 정토사(淨土寺)를 세웠다. 그러고 나서 더욱 열심히 불도를 닦았는데 그 뒤의 소식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권 제4 탑상편 ‘낙산의 두 성인 관음, 정취와 조신’의 뒷부분에 나온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신이 신라시대 어느 임금 때의 인물인지 정확히 상고할 수 없다. 김씨 부인의 아버지 김흔이 제 31대 임금 신문왕 때의 인물이란 설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일연선사는 조신의 꿈 이야기를 소개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곰곰이 생각해보건대 비단 조신의 꿈만 그러하랴. 인간세상의 낙이라는 것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건만, 사람들은 오로지 즐거움만 좇아서 괴로움이 있음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시를 한 수 지어 붙였다.

-달콤한 한 시절도 지나보니 허망하네. 나도 몰래 근심 속에 이 몸이 다 늙었네.

허무한 부귀공명 다시는 생각 마오.

괴로운 한평생이 꿈결인 줄 알리니.

착한 행실 위해서는 마음부터 닦을지니
홀아비는 미인을, 도둑은 재물을 꿈꾸네.

어찌 가을 밤 푸른 꿈만으로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을 꿈꾸리오. -[附]

본회산악회 하늘공원서 송년산행

대한언론인회산악회는 지난해 12월 26일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상암동 월드컵 하늘공원에서 송년산행을 뜻깊게 장식했다.

쓰레기 매립지 산 위에 새롭게 태어난 세계적인 환경생태공원 하늘공원(해발 98m)에서 즐긴 트레킹은 자연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산행 후 마포 농수산시장 횡집에서 가진 뒤풀이는 산악회 대화합의 한마당 잔치였다. 흥원기회장, 김은구상

담역, 이병대부회장, 정운종 산악회장(기념타월), 이상호부회장, 김세경 김휴선 회우는 금일봉을 찬조했다. [附]

〈송년산행 참석회우〉

강두모 강진형 고덕환 고재혁 김기원 김성모 김세경 김연일 김영호 김은구 김충한 나용경 안종우 엄영섭 우재근 유진수 윤익한 이보길 이상호 이우진 이육용 이정세 임현태 장 옥 정운종 정창기 지용우 최귀조 한양인 황귀근



하늘공원 산행에 앞서 기념촬영.

신춘에세이

인제 자작나무 숲에서 ‘하얀 침묵’ 배운다

이규섭 (본보 편집위원·칼럼니스트)



강원도 인제 원대봉자락의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

여행메모

승용차가 편하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흥천IC에서 나와 44번 국도로 갈아탄다. 38선휴게소 지나 1km 정도 더 가면 원대리 자작나무숲 쪽으로 우회전하는 이정표가 나온다. 문의 북부지방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033-460-80360). 인근에 식당이 많지 않다. 곰취 장아찌에 싸먹는 돼지수육이 색다른 맛. 원대막 국수집(033-462-1515)

치유코스(1.5km), 탐험코스(1.1km)로 이름 붙여 놓았으나 별 의미 없다. 각 코스는 서로 겹치면서 이어져 걷고 싶은 만큼 걷다가 숲을 벗어나면 그만이다.

하얀 세상에 하얀 피부를 드러낸 자작나무 숲에 들어선다. 자작나무 표피에 부서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빛난다. 지순한 순백의 겨울 정령 앞에 강렬한 에너지를 느낀다. 시린 가슴이 눈처럼 녹으며 포근해진다. 얼룩진 영혼이 하얗게 표백된다. 세상 시름과 삶의 고단함이 순치되어 순백의 위안을 받는다.

눈 덮인 자작나무 숲에 새하얀 침묵

이 흐른다. 은빛 세상의 적요가 고즈넉하다. 말이 말을 만드는 말 많은 세상, 혼돈의 언어들을 눈 속에 묻는다.

살아서 피가 도는
날선 고딕의 언어에도
그대 눈썹은 미동조차 않는구나.

조어로 길들여진
쪽정이 낱말들이
이 시대를 수식해도
그대는 왜소한 점미사로 남아
허공을 깨물고 있구나

바람떨미를 일으키며
거리를 누비는 낡은 구호들이
오늘의 역사를 모자이크해도
그대는
낮은 난간에 기대어
다만 서 있을 뿐이구나.
<졸저 ‘침묵·1’>

지난 한해 쏟아진 날선 말의 비수가 국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도려냈던가. 한 때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고, 침묵 속에 분노를 안으로 곰삭이며 시대의 아픔을 활자의 행간에 담았다. 세상이 변해 자유가 홍수처럼 넘치는데도 그 시대의 헛구호가 흥흥하게 거리를 휩쓴다. 말의 신뢰는 무너지고 독설이 흥기로 변한다. 어둠을 밝혀야 할 촛불은 끊임없이 이슈를 생산하며 갈등을 부추긴다.

제몹을 챙기려는 투쟁의 목소리가 도심에 메아리친다. 식언을 식은 죽 먹듯 내뱉는 지도자들의 반주의 거울이 금간지 오래다. 말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벼워졌다. 북한의 처참한 처형은 살점을 떨리게 하는데도 추종세력들은 침묵한다. 그들의 조국은 어디인지 묻고 싶다. 감성의 늪에 빠진 한 대학생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에 이념의 딱지를 붙이는 기성세대와 기득권의 불온한 호응은 우리시대의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서글프다.

은세계에 뿌리내린 자작나무숲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린다. ‘자작자작~’ 소리를 내며 타는 자작나무에 허욕을 불사른다. 겨울하늘을 이고 꽃꽂이처럼 칼바람을 이겨내는 자작나무숲에서 하얀 침묵의 미덕을 배운다. [출처]

올해는 ‘청마(靑馬)의 해’라고 한다. 갑오년(甲午年)의 갑(甲)은 청(靑), 오(午)는 말(馬)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말띠, 그 중에서도 청말띠가 되는 셈이다. 말띠 가운데서도 갑오생은 청마, 병오생은 적마, 무오생은 황마, 경오생은 백마, 임오생은 흑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적·황·백·흑 4가지 색의 말과 달리 유일하게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말이 청마다. 우리 민속에서 말은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월 첫 오일(午日)을 ‘상오일(上午日)’, ‘말날’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이날 말에게 성찬을 주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또 10월의 午日에는 팔떡을 만들어 마굿간 앞에 차려 놓고 말의 무병과 건강을 빌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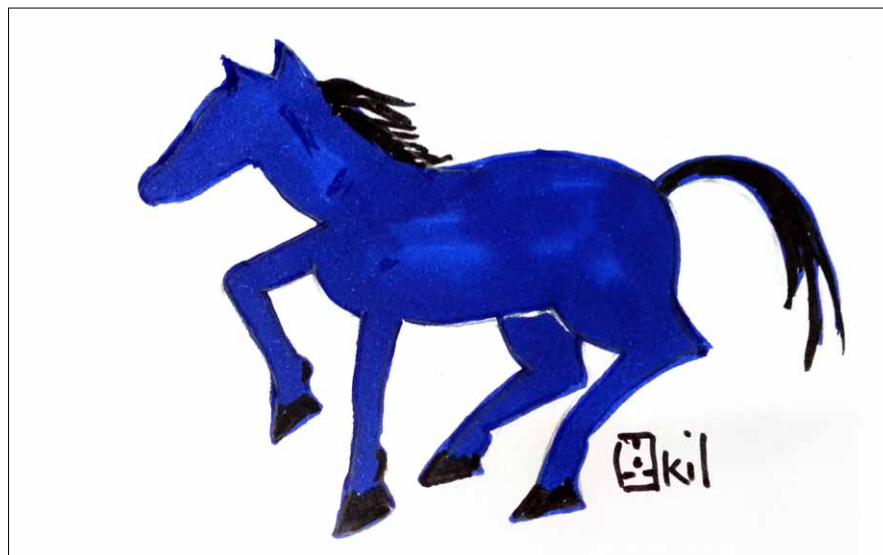
1894년 갑오경장이나 1954년 6·25전쟁 이후의 재건처럼 역사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불행한 사건에서 벗어난 해임을 기억하고 기대와 희망을 품어보직하다. 추사체로 이름을 날린 김정희,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독립 운동가 조만식 등이 말띠 생으로 유명하다. 시인 유치환의 호는 ‘청마’다.

윤달은 ‘해방의 달’

올해는 쌍춘년으로 말 그대로 입춘이 두 번 들어있고 윤달이 있는 해다. 쌍

올해는 甲午 ‘靑馬의 해’

立春 두번에 음력 9월 윤달



춘년은 3년 걸러 한 번 정도 윤달이 끼는 해에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쌍춘년이 생기는 것은 음력 날수가 큰 달은 30일이고 작은달은 29일이다. 반면 양력은 큰달이 31일, 작은달이 30일이다. 그래서 1년에 10여일의 차가 생기는데 이렇듯 10여일의 차이가 3년이 지나면 30여일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이를 윤달(공달)이란 달 하나를 더해

13달로 만들어 음력과 양력의 균형을 만들어간다. 여기서 쌍춘년이 생기는 것이다. 음력설이 1월경에 들고 윤달이 들어있는 해는 틀림없이 입춘이 두 번 들게 된다. 올해 윤달은 음력 9월에 있다.

윤달은 예로부터 ‘해방의 달’로 여겨졌다. 모든 신들이 1년 12달을 관장하는데 윤달은 13번째 달이라 인간의 일에

간섭할 귀신이 없어 행하는 모든 일이 부정을 탄다거나 액이 끼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그래서 윤달에는 이사를 하거나 집수리, 산소 이장, 산소 단장, 수의 마련 등 흑역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봐 평소에 쉽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달로 여겼다. 윤달에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 어른이 무병 장수 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풍습이 있다. 다음 쌍춘년은 2017년이다.

올해 무덤고 폭설·폭우 가능성

점술가들이 말하는 2014년을 보면 “천간 갑목의 기운은 갑기합화토(甲己合化土)의 변화 작용에 의하여 토의 끈끈한 기운이 넘치는 토태과(土太過)의 해가 된다. 지지 오화(午火)의 기운은 자오충 소음군화(子午冲 少陰君火)의 작용에 의하여 더운 열기를 발생시킨다”면서 “그러므로 지상에서 발생한 더운 열기의 도움을 받아 하늘에 많은 수증기가 농축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덤고 폭설이나 폭우의 가능성이 높은 한해가 될 것이다. 오운육기(五運六氣) 계절의 운기를 고려하면 여름철에는 두 달 간의 긴 장마가 예상된다.”고 말한다. [출처]

글·삽화= 이보길 편집위원

사우회 소식

송년의 밤, '모범사원상' 시상



경향신문

경향신문사우회(회장 김명수·본회 회우)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송년 모임을 갖고 단합을 과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사우회는 경향신문 편집국 경제부 오창민 차장과 정재혁 사회부 기자에게 '경향 모범 사원상'을 시상했다.

이날 송년 모임에서 임종수작곡가는 '노래와 인생'이란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 화제가 되었다. 한편 편집기자 출신모임(회장 양성목·본회 회우)은 12월 20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 소재 '백마강'에서 25명의 선후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송년회겸 정기총회 김태선 회장 선임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광희·본회 회우)는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세종문화 회관에서 동아일보 동아방송 전직사우 모임인 동우회 송년의 밤 겸 정기총회를 열고 김태선(전 동아일보 이사 논설위원)회우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박문두(본회 회우)·전용호(본회 편집위원)동우는 몽도상을 수상했다.

서울시보 24호 발행

서울신문

서울신문사우회인 서울회(회장 김문진·본회 회우)는 지난해 12월 17일자로 서울시보 24호를 발행했다. "갑오년 새해 명마타고 힘차게 달려보자" 제하의 머리기사를 비롯, 2014년 3월 13일 서울회 정기총회 예고기사, 청계산 걷기대회, 산악회, 사이클동호회, 회우동정등 다양한 소식이 실렸다. 특히 7면엔 김은구 본회 상담역이 대한언론인회 19대회장후보로 출마한 소식도 보인다.

정기총회겸 송년회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우회(회장 제재형·본회 고문)는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남대문로 한진빌딩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2014년 창간 60주년을 앞둔 한국일보의 도약과 부활을 기원했다.

1월 24일 정기총회

한국경제

한경사우회(회장 엄영섭)는 2014년 1월 24일(금) 오후 5시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신년하례식겸 정기총회를 갖는다.

한편 사우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서울 시내 아차산에서 송년산행을 가졌다. 이날 산행에는 엄영섭 회장을 비롯 회원 25명이 참석했다. 한편 갑오년 새해에는 젊은 회원들 영입에 전회원이 힘쓰기로 결의 했다.

정기총회 겸 송년회



헤럴드

헤럴드 사우회(회장 윤익한·본회 상담역)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 대화홀에서 윤익한 회장(본회 상담역)을 비롯한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와 송년모임을 가졌다.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 출신으로 구성된 헤럴드 사우회는 앞으로 1년에 두 차례의 산행을 정례화 하고 기타 동호인모임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본사 이영만 사장이 마련한 이 모임에서 사우회 회원들은 헤럴드 홍보대사를 자임하자는 윤회장의 제의에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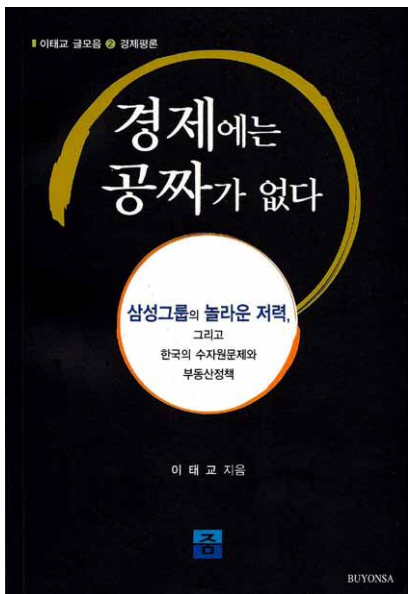
회우들이 펴낸 신간

이태교 회우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

최근 이태교 회우가 지난해 정치평론집에 이어 올해 경제평론집 '경제에는 공짜가 없다'를 출간했다. 그동안 이 회우는 신문, 잡지 등에 기고했던 글과 평소에 틈틈이 써두었던 글들을 '이태교 글모음'이란 이름을 달아 책으로 펴내왔다.

이번 그의 경제평론집은 삼성그룹에 관련된 글과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비판등 필자의 다양한 경력을 통해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글모음이다.

중앙일보 정치부에서 보여준 그의 기자, 때로는 미디어에디터로서의 기량이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눈에 들어 회장 비서실과 삼성 에버랜드 기획조사실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거대 그룹 창업자의 생각, 미래 세계경제를 꿰뚫어 보는 안목과 인간적인 면모들을 담아낸 글은 '인간



이병철'과 현재 국내 생산 30%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삼성그룹의 오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더구나 머지않아 물 부족 국가가 될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채 물 문제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 근시안적인 지식인들에게 던지는 경고는 필자가 수자원공사사장 근무이전부터의 소신

이기는 하지만 전정권의 4대강 사업이 아직도 논란의 대상이되는 지금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할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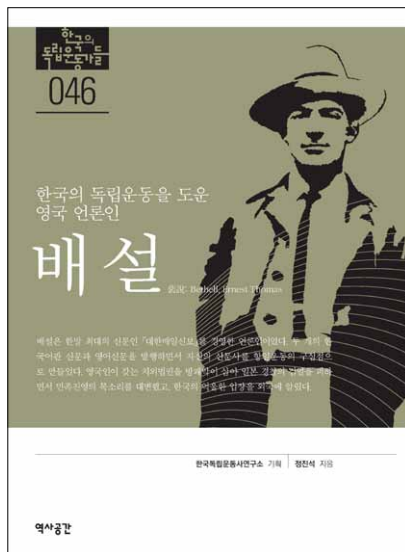
한국에 부동산학을 학문의 영역으로 편입,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그는 이평론집에서 역대정권이 부동산에 대한 마스터플랜 없이 그때그때 땀 흘려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오늘날 부동산 대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진석 명예회우 '배설 : 한국의 독립운동...'

정진석(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회우의 '배설: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영국 언론인'이 출간되었다. 배설(裴說 E.T.Bethll)은 한말 최대의 민족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여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37세 젊은 나이로 극적인 생을 마친 영국인이었다.

대한매일신보는 3개의 신문(국한문판, 한글판,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을 총칭하는데 배설은 항일 언론을 펼치다가 일본의 요구로 두 차례(1907년, 1908년)나 영국의 재판을 받은 끝에 3주일간 상하이에 있는 영국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돌아오는 수난을 겪었다.

그의 정곡을 찌르는 지적에는 한국일보, 중앙일보 정치부기자시절 보여주었



그는 1909년 3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나는 죽을 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정진석 교수는 오랜 기간 한국, 영국, 일본의 자료를 조사하여 배설의 집안 내력, 그가 졸업한 브리스톨의 학교 서류, 영국과 일본간에 오고 간 100년 전의 외교 문서, 당시의 신문

기사 등을 고증하여 책을 저술하였다.

독립기념관이 기획한 '독립운동가 열전' 100권 가운데 들어 있는데, 일반 독자들이 당시 한국이 처한 복잡한 국제정세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문장에 사진자료를 곁들여 저술하였다.

던 언론인으로서의 날카로움이 번뜩인다.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가나다순

강병국(姜炳國)



1958년 6월 10일생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9-50 롯데캐슬 주피터 101동 304호
02-585-9944 / 010-8707-4225
〈경력사항〉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경향신문사 입사(82), 경향신문사 노조위원장(92), 사법시험 40회 합격(98), 변호사 개업(2001), 경향신문사 감사(2001), 경향신문사 법무고문(2013. 6까지), 현재 법무법인 한민대표변호사

노재성(盧在成)



1943년 10월 9일생
경기 의정부시 회룡로 111(호원2동 한신아파트)101동 604호
031-871-1808 / 010-5240-1808
〈경력사항〉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졸업, 고려대 언론대학원 졸업, 동아일보 편집국 및 방송국(정경부)기자(68.12-78.2), 동아방송 정경부, KBS 정치부 기자, 국민일보 창간 기획본부장(전무) 및 부사장(88.2-89.6),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사무총장, 대통령비서실 정부비서관, 한국미래포럼 공동회장, 평화문제연구소 상임이사, 현재 한국퇴직자총연맹(가칭)회장

송종문(宋種文)



1948년 3월 15일생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312동 403호(잠실동 트리지움)
760-0904 / 010-2266-3211
〈경력사항〉한국일보사 조사부 기자(73), 중앙일보 출판 제작국 출판부 기자(80), 차장(86), 부장(91), 부국장(94), 미디어 월드(주) 이사, 중앙일보 시사미디어상무, 월간 NEXT(중앙일보 자회사)대표이사, 성균관대 교수(2013)

장석영(張錫英)



1942년 11월 6일생
서울 동작구 만안동 만안로 19 노량진동 신동아 리버파크 705동 206호
8154-9487 / 010-5282-9487
〈경력사항〉연세대 정외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서울신문 기자(68-79), 아세아정책연구원 연구위원(80-81), 스포츠서울 생활부차장, 서울신문 편집위원(88), 제2사회부차장 사회부장(88), 논설위원(92 부국장급), 판매국장(95)

홍창덕(洪昌德)



1949년 7월 14일생
서울 성북구 길음2동 635-168 신안아파트 1동 608호
6227-6222 / 010-2245-6574
〈경력사항〉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졸업(75), 월간 여원 기자(공채), 매일경제 기자(견습 7기), 한국일보 기자(76-80) 차장대우(87), 편집부장(88-98), 고려기자아카데미 주간 겸 대학로 뉴스 편집국장(98), 조선일보에디터 조선편집국장, 황해도 중앙도민회 황해민보 편집국장(2005-현)

정태연 원로회우 별세

정태연 원로회우가 12월 1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81세.



고 정태연 회우

고인은 1933년 6월 18일 충북제천에서 태어나 용산고와 중앙대 법대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 신문대학원을 수료하고 1955년 한국일보 견습 3기로 언론계에 투신, 한국일보 사회부차장, 외신부장, 기사심사부장, 주월특파원, 편집부국장 겸 주일특파원, 편집국장대리, 코리아타임즈 편집국장, 부사장 겸 편집인, 한국일보 편집인 상임고문, 코리아타임즈 사장을 두 번 역임 했다..

언론에 종사하시면서 고인은 세계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해외 취재를 많

이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 IOC위원회 보도위원으로서의 눈부신 활약도 돋보인다. '파사현정'이 좌우명인 고인은 퇴직 후 대학 강단에서 신문편집론 등을 가르치고 '인형의 계곡' 등 외국 소설들을 번역, 한국문학상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문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3시 고인의 빈소에서 언론인장을 거행했다. 이날 언론인장 행사에는 흥원기 회장을 비롯 제재형 고문, 김은구 한기호 상담역, 송효빈 감사, 이태영 부회장, 권혁승 홍순일 유일연 김두근 이억순 회우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4]

정태연 고문님을 애도하며

弔辭

홍선희(전 코리아타임즈 편집위원)

정태연 고문님!
어찌 이렇게 어이없이 가십니까.

정 고문님은 부지런하고 깐깐하며 악바리 근성이지만 속으로는 맑고 정이 깊은 분이었고 오랜 기간 유일한 여기자였던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는 제 아버지와 지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한 공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문님은 58년 동안 한국일보사와 성쇠를 함께 하며 중학동 14번지를 지킵셨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여 장기영 사주의 오른팔로 특별 취재 혹은 사주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내외를 누볐고 공항을 사회부 출입처로 발골했습니다. 사회부 차장, 외신부장, 편집국부국장을 거쳐 4년간 주일특파원으로 근무했습니다.

1959년 방콕으로 파견, 민항기 비행관할 구역설정을 위한 ICAO 취재를 시작으로 1백회 이상 해외취재를 다닌 덕분에 동료 기자들의 시샘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 라오스 내전, 61년 미국과 중남미 14개국 및 유럽 26개국 순례, 62년 올림픽예선 원정 축구단, 63-65년 동남아 순례 취재 등 굵직한 취재를 다녔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하와이로 망명했을때 고문님은 유학생을 가장하여 단독 취재에 성공해서 사진과 기사를 항공편으로 보냈고 장기영 사주는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IOC총회에 장기영 위원 보좌관으로 동행했고 이후 장강재회장 재임시에도 한국일보 및 자매지들을 통해 올림픽을 홍보하는데 애쓰셨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기간중에는 코리아 타임즈가 공식 신문 제작을 맡았으며 그런 노력 덕분인지 장강재회장이 사마란치 위원장으로부터 IOC 위원을 제의받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11월25일 발행된 한국일보 전직사우회신문인 한우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고문은 자신의 인생 모토가 파사



고 정태연 회우 영전에서 조사를 읽는 홍선희씨.

현정(破邪顯正· 나쁜 것 잘못된 것을 피하고 올바른 것을 세운다)이라면서 창간 60주년을 맞는 한국일보를 재창간하는 정신으로 하루속히 난국을 해결해 주기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정고문님은 오랜 기간 코리아 타임즈의 랜드마크이셨습니다. 1974년 편집국장으로서 부임해 이사, 상무, 사장, 고문으로서 영자일간지의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방관을 신설하였고 대사관이나 재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일에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초짜기자 시절 몇 년간 제 업무는 저녁에 열리는 대사관 리셉션을 취재하여 시내 판 신문에 올리는 것이라 이태원 꼭대기에서 인적없는 밤길에 잡히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며 원만한 적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담당자가 확실하지 않은 기삿거리나 외국인과의 즉석 인터뷰를 수시로 지시하고 편지쓰기 혹은 창립기념일 봉투 타이핑 등을 시키셔서 '왜 하필 나'라며 툴툴거리곤 했습니다. 저를 가깝게 생각하신 것이겠지요.

부음을 접하자 코리아 타임즈 사우들이 여기 저기에서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사우들의 청춘, 장년 시절 삶에 있어서 정태연이라는 분이 막중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태연님으로 인해 맛깔스러웠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빈 자리는 오래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지팡이 던져버리고 경쾌하게 걸으십시오.

정태연 선배님,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4]

2014 회우수첩 만듭니다

1월 20일까지 변동사항 알려주세요

2014년도 회우수첩을 새로 제작합니다. 회우 여러분의 신상변동사항을 1월 20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약력(4가지 이내), 자택주소(신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등 기재바랍니다.

보낼 곳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이메일 : kjc1405@hanmail.net
전화 : 732-4798
팩스 : 730-1270

MBC

여러가지 MBC,
여러가지 대한민국



본회 송년회 200여명 참석 고희축하 박수

2013년도 대한언론인회 송년모임이 12월 20일 오후 5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회원기 본회 회장을 비롯, 제재형 고문과 조창화 명예회장, 본회 임원진 등 2백여 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회원기 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대한언론인회를 적극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희망찬 갑오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정운종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송년행사는 먼저 식전행사로 초청강연을 들었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전남 담양 한국시가문학과 해설사인 이정옥 교수는, 한국 최초의 ‘Mono Poem Opera’라는 새로운 공연 예술의 장르를 개척한 한국시가문학과해설사로서 이날 ‘남도문화의 향기’란 주제의 감동적이고 해학적인 강연으로 회원들에게 즐거움과 행복한 웃음을 선사했다.

이어서 진행된 고희 회우 축하연에서는 올해 만 70세가 된 28명의 회우들에게 축의금이 전달됐고 고희 회우를 대표해 도준호(본회 이사·전 조선일보 논설위원)회우가 답례인사를 했다. 도준호 이사는 답사를 통해 “대한언론인회가 성대한 잔치를 마련해 줘 고맙다”고 말하고 연일 시청 앞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시위를 우려하며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언론인들의 우국충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정운종 이사는 지난 4년 동안 대한언론인회를 성원해 준 광고주를 일일이 거명, 우레와 같은 박수로 고마움을 표시했다. 특별히 지난 4년 동안 대한언론인회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광고를 유치해준 회원기 회장과 김은구 한기호 상담역, 이태영 정기정 부회장, 최귀조 정두진 이사, 성낙오 편집위원장, 황귀근 광고국장, 장석훈 회우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또한 회원기회장은 이날 행사집행위원장으로서 항상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대한언론인회의 원활한 행사집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온 나용경 회우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고희를 맞은 회우들이 기념품을 받았다.



회원기회장 인사



제재형고문 축배



정운종이사 사회

다음은 지난 4년 동안 대한언론인회를 성원해준 광고주 명단이다.

대한언론인회를 성원해 준 광고주(가나다순)

〈성원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국민연금 관리공단 금호건설 기업은행 노컷뉴스 농협중앙회 대구육상연맹 대법원 대한주택보증공사 동아일보 두산그룹 마니커 무역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에셋증권 부산광역시 삼성그룹 삼성생명 서울시청 세종특별자치시 신원 아시아시멘트 우정사업부 전자랜드 조선일보 지구촌평화연구소 지역난방공사 충남도청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포스코그룹 한국가스공사 한국경제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일보 KT올레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 한국SGI 한양대학교 한화생명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그룹 KBS LH공사 MBC SBS SK그룹 SK텔레콤



나용경회우(오른쪽)에게 감사패 증정.



초청강연자 이정옥 교수에게 감사패 증정.

글·정운종 상임이사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고희답사

도준호(본회이사)

인생 70 고래희(古來稀)라는 말은 요즘엔 통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는 노인이라 부르지 않고 신중년이라 부릅니다. 중년은 중년이로되 새로운 중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연부역강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회구조상 대부분이 제2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즐겁고 재미있게 삽시다.

여건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하고 취미생활 하고



고희 답사를 하는 도준호 이사.

친구들을 많이 만나 담소를 나누며 사

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보시인이라 불렀던 천상병씨는 이승의 삶은 하늘나라에서 잠깐 소풍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 짧다는 뜻과 함께 즐겁게 살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 금강경에 ‘아름다운 것은 머물지 않는다’(妙行無住分)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아름다웠던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낮은 자세로, 분수를 지키며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았던 것을 돌려주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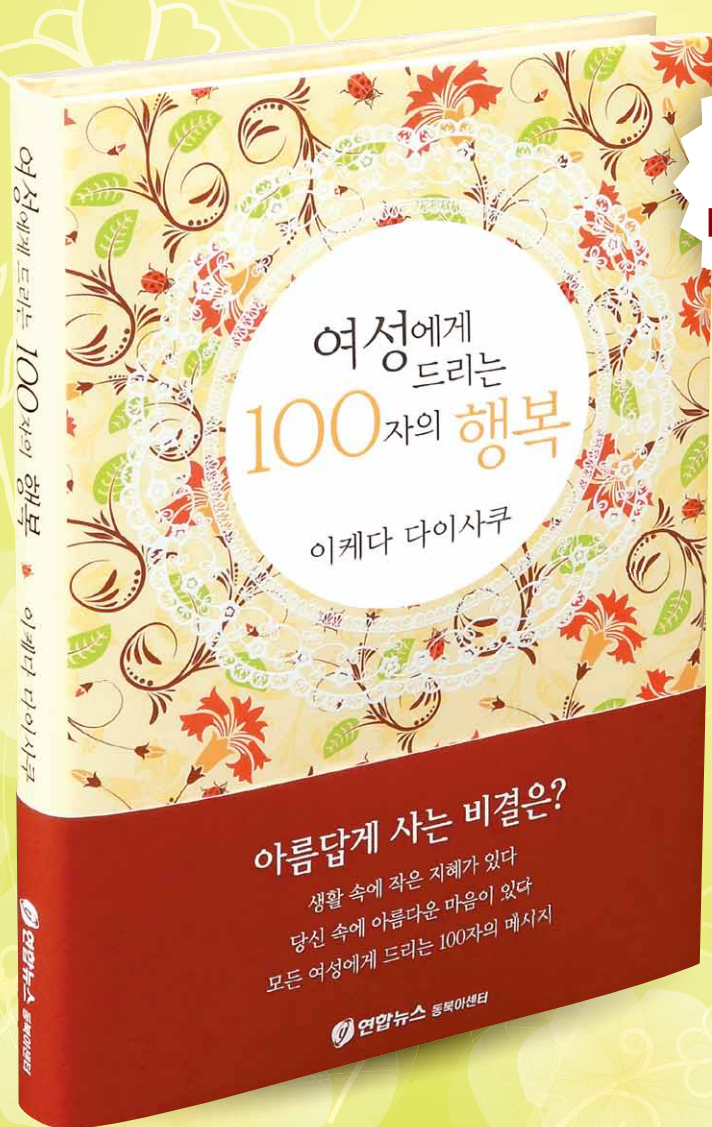
고희를 맞아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피땀흘려 가꾸어 온 공동체를 허물려는 종북세력으로부터 이 사회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탤으면 합니다. 서울 시청앞 광장은 시민들의 휴식처가 아니고 매일 데모와 시끄러운 마이크소리, 경찰과 시위꾼들의 몸싸움으로 영일이 없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다’라는 노랫말처럼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즐겁게 살도록 모두 노력했으면 합니다. ☞

여성에게 드리는 100자의 행복

아름답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일상에서 건져 올린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지혜
모든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메시지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선정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외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살아가는 삶,
자기만의 목표를 찾아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이야말로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아름다움이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멋진 연애와 사랑을 꿈꾼다면,
올곧게 살아가고 싶다면,
진정한 자신을 찾아내 부지런히 연마해야 한다.”

이케다 다이사쿠 지음 / 값 10,000원 / 184쪽

추천사

“자신에게 당당하면서 자녀에게는 멘토로서, 남편에게는 꿈을 만들어 가는 파트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은 워킹맘들에게 추천한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

“여성뿐만 아니라 현대의 모든 ‘시시포스’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 인생이라는 바위를 밀어 올리다 만나는 시원한 바람을 이 책에서 느끼기 바란다.”

고민정 KBS 아나운서

“때로는 많은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적절한 빼기가 더 중요하다. 이 책에는 잡다한 지식도, 어려운 용어도 없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깔끔하게 들려준다.”

‘뽀로로 아빠’ 김일호 오콘 대표

회우동정

가나다순

단국대 석좌교수



남선현(JTBC상임고문) 회우= 2014년부터 단국대 석좌교수로 강단에 선다. 남회우는 KBS 워싱턴 특파원, 미디어 사장,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JTBC 사장 등을 지냈다.

'50년 한길기념패' 등 받아



박기병(전 춘천MBC사장)본회 이사=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6시 30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있는 연세 언론홍보 최고위과정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을 빛낸 인물 중 '50년 한길기념패'를 받았다. 또한 박기병 이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춘천교대총동문회 석우인의 밤 행사에서 학도병 6·25 참전 기념비건립 및 6·25참전명패증정행사 주도와 언론인 6·25 참전기 책자 발간 공로 등으로 공로패를 받았다.

몽도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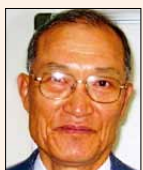
박문두(전 동아일보 사진부장·사진 상), 전용호(본회 편집위원·전 동아일보 부국장·사진 하)회우= 지난 12월 17일 동아일보 사우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몽도상을 수상했다. 몽도상은 고 이동수(아호 몽도) 초대 동우회장의 유족이 기탁한 5천만원으로 제정됐다.

아동복지 월간지 '어린이애 꿈' 창간



박종서(전 스포츠서울 편집부국장)회우= 최근 아동복지 소식지 월간 '어린이 애 꿈'을 창간, 현재 5호를 준비 중에 있다. '어린이 애 꿈' 사는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 평생교육원 재원을 위한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며 2014년 1월 완공되면 평생교육원과 대안학교를 함께 개원한다.

블로그 '손주환 세상산책' 운영



손주환(전 서울신문 사장)회우= 블로그 '손주환 세상산책'을 운영 중이다. 집필, 글, 논문과 인터뷰, 보도 기사 등 손주환 회우 주제의 자료들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엔 SBS 8시 시사뉴스 '김성준앵커의 클로징멘트'

에 관해서 집중토론했다.

제24회 '시장경제 대상' 수상



안병훈(출판사 기파랑 대표)회우=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11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제24회 '시장경제 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역사'를 저술한 공로로 출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만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참관



여영무(뉴스엔피플닷컴 대표·남북전략연구소장)논설위원= 11월 21일 룡잉타이(龍應台)중화민국 문화부장(장관급)초청으로 21~24일까지 타이베이시 남향무역센터에서 열린 제4회 '대만국제문화창의산업박람회' 참관 및 취재보도(뉴스엔피플닷컴 11월 25일 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자문위원장



이성준(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회우= 지난해 12월 1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자문위는 조정·중재심리를 지원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국방, 의료·바이오, 금융, IT컴퓨터, 환경, 건축, 기술·특허, 방송작가, 언론등 9개분야로 구성됐다. 임기3년.

현정회 원로회의 부의장 선임



정재호(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원로회우= 지난 연말 대한민국 현정회 원로회의(의장 이철승)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현정회 원로회의는 3부요인, 국무총리, 유력정당대표를 당연직 원로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현정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위원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다.

저널 아카데미 개설, 대표 맡아



최병요(전 한국경제 편집위원)본회 논설위원= 지난 12월 '저널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대표를 맡았다. '좋은 글쓰기 운동본부'를 겸한 저널 아카데미는 보도기사 및 생활문 작성요령 등을 주제로 한 전문 강사의 강의와 지도를 제공, 기록문화의 창달을 도모한다.



제재형고문 부부.

신경식회우 청원군에 공덕비 제막

신경식(전 국회의원)회우의 공덕비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1시 청원군 문의면 문화재 단지내에서 문의면 번영회 주최로 청원 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되었다.



공덕비 옆에 선 신경식 회우.

국회의원을 역임하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청원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대한언론인회에서 김준하 원로 회우와 김성배 부회장, 강승훈, 임한순 조재린 회우 등이 참석했다.

▶ 회우경조사 ◀

마권수 회우=12월28일 12시 프레스센터20층에서 딸 결혼

유자효 회우=12월21일 토요일 오후 5시30분KBS신관홀에서 장남 종선군 결혼

윤홍섭 회우=2014년 2월 8일 토요일 낮 12시 강남구 대치동 컨벤션 벨라지움 3층 그랜드볼룸 아들 준호군 결혼

정희준 회우=2014년 1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세라톤 그랜드 워커힐 1층

무궁화 홀에서 차남 성권군 결혼

김성묘 회우= 12월 27일 부친상. 강북삼성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2월 30일 아침

▶ 주소·전화번호 변경 ◀

김춘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97번길 87, 대림한숲빌라113-104호 ☎ 010-8770-1781

이세환= ☎ 010-8860-9558

미납회비 납부바랍니다

연회비를 최소한 2012년분까지 납부하셔야만 2014년 1월21일 있을 대한언론인회 제 19대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계좌: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3년 11월 27일 마감분)

강병국(입회비),강성구(12.13),강진형(14),계창호(12.13),고재혁(8.9.10.11.12.13),권영빈(12.13),권혁만(14),김기원(14),김세경(14),김승웅(13),김양섭(14),김양삼(12.13)김영일(13),김영환(14),김용발(14),김유동(8.9.10.11.12.13),김은구(14),김재근(14)김종렬(12.13),김종하(13),김진걸(14),김진기(14),김준하(14),김현숙(30,000),김화(14)남시욱(14),노상국(13),동문성(13.14),박광춘(14),박권흠(9.10.11.12.13),박동은(12.13)박명근(14),박석흥(14),박영길(13),박종서(14),박진서(13),박진열(8.9.10.11.12),배병휴(12.13),백일진(14),설임윤(12.13),성병욱(14),손세일(12.13),송선무(14),송용식(12.13),송종문(입회비),송평성(12.13),송형목(12.13),신성순(14),심의표(13),안병훈(9.10.11.12.13),양휘부(13),엄종석(11.12.13),오근영(13),윤병찬(14),윤석웅(14),윤익한(14),윤홍섭(14),이경재(12.13)이배영(14),이병국(14),이병삼(12.13),이상갑(13),이석희(12.13),이선(입회비),이세환(14),이순기(14),이억순(14),이용권(13),이용화(14),이우진(14),이전문(11.12.13),이종석(13),이종식(13),이종전(12.13),이종준(14),이준기(12.13),이태교(12.13),이

태영(14)이태자(14),이향숙(14),이형균(14),이화복(8.9.10.11.12.13),임상학(13),임현태(13),장석훈(13),장준식(12.13),전용호(14),정기정(14),정병수(11.12.13.14),정성진(13),정재필(14),조성하(14),지정식(13),천상기(10.11.12.13),최광일(14),최선록(14),최신호(14),탁성만(14),한강수(13),한규남(13),한동원(12.13),한영탁(13),형진한(12.13),호영진(12.13),홍성혁(14),홍창덕(입회비),황대연(14)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洪元基
- 인쇄인 李榮一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 02)2001-7621
- Fax. 02)730-1270
- 편집제작실 02)2273-4253 드림프랜드

회우가족동정

제재형 고문 부인 권영순 여사 22회 신사임당상 수상

제재형 본회 고문의 부인 권영순 여사가 지난해 12월 17일 2013년 제22회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신사임당상을 수상했다.

* 현재 TV 방영중인 한경CF의 한 장면입니다.



500만 오디언스의 성공스토리

확~ 달라진 한경!

- ✓ 더욱 분명한 논조로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 ✓ 깔끔한 비주얼 편집으로 보는 즐거움을 배가했습니다!
- ✓ 한경-only 콘텐츠로 정보의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 ✓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사옥, 독자들의 편안한 쉼터입니다!
- ✓ 한발 빠른 모바일 콘텐츠로 뉴미디어의 지평을 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성공을 부르는 습관



고교생에게 경제 마인드를
전국 고등학교에 경제 논술신문 '생글생글'을 무료로 배포합니다.



'문화 게릴라' 한경
사옥 1층 '한경 갤러리'에서는 거장들의 작품전과 음악회가 연중 개최됩니다.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적 석학, CEO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재포럼을 통해 경제와 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합니다.



수준이 다른 모바일 콘텐츠
국내 언론 최초의 아이패드 뉴스 서비스는 신문보다 빠른 업데이트로 비즈니스맨의 아침을 깨웁니다.

“천재의 혼을 낚다”
세계축제도시선정 기념
이탈리아에서 온 르네상스 거장
미켈란젤로 특별展

nara festival .com
1688-3005

“3D로 느끼는 고전미술”
3D 디지털 미술관

얼지않은 인정
녹지않는 추억

2014
세계 4대 겨울축제!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
얼음나라 Hwacheon Sancheoneo Ice Festival

화천산천어축제

2014
01.04 SAT
01.26 SUN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일대

산천어 얼음낚시 / 산천어 루어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 창작별매 콘테스트
선등거리/얼음썰매광장/아이스편파크/스노우펀파크
얼음나라투명광장/세계겨울도시 및 세계4대 겨울축제홍보관
겨울문화촌 등 60여가지의 상설프로그램